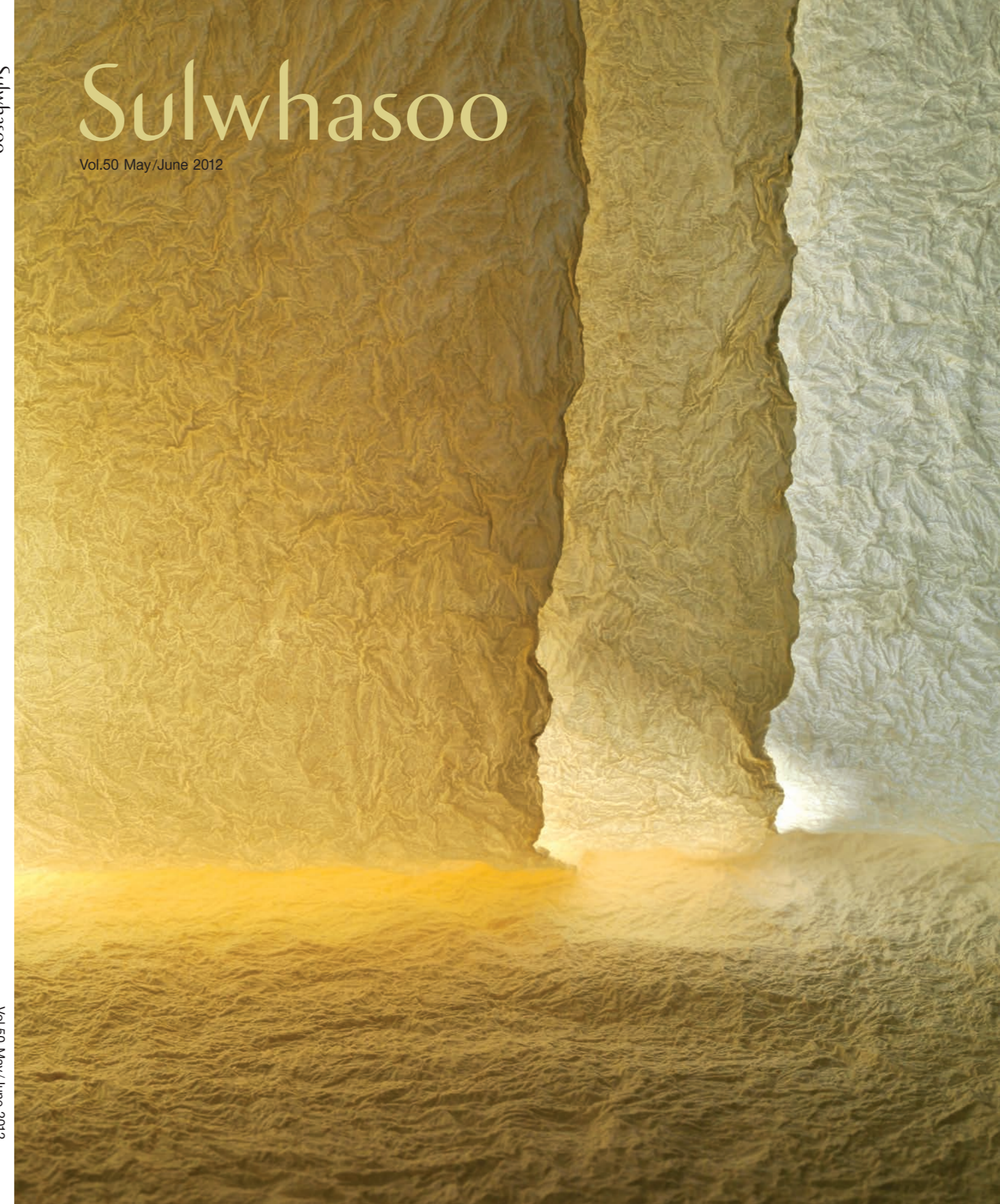




Sulwhasoo

Sulwhasoo

Vol.50 May/June 2012



Vol.50 May/June 2012



31년

雪花秀

피부온도를 다스리면 피부 스스로 노화에 강해집니다 설화수 소선보크림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노화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열에 의한 자극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노화에 취약한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 편백나무 성분을 적용한 소선보크림은 생활 속 열로부터 피부의 온도를 지켜 피부 스스로 나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부온도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안티에이징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소선보크림

Sulwhasoo



TPF40: TPF란 열차단지수(Thermal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TPF40은 노출된 열의 40% 이상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31년

나는 적정 피부온도일까? 지금 바로 TEST해보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www.facebook.com/sulwhasookorea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아흔아홉 번의 손길로 탄생되는 우리 종이

紙千年絹五百. This means that silk goes 500 years and Korean paper goes 1,000 years. Unlike what most people believe, Korean paper does not degrade when kept properly and can be used permanently as it can be washed and reused. Made with mulberry, Korean paper is considered the best, probably because quality mulberry was processed by the most skilled masters. In Korea, there have been professional paper masters since the Goryeo Dynasty.

In private schools, the essential stationeries were paper, brush, ink tablet, and ink bar. In farm households, the three treasures of farming were paper, lacquer, and linen. The fact that paper was the first of the essential stationeries and the three treasures tells that paper was closest to the lives of Korean ancestors. You can easily imagine this because scholars needed Korean paper to make books and commoners used Korean paper to make doors, floorings, underwear, and even vessels. Korean paper has existed among us to enrich our body and mind.

지천년견오백(紙千年絹五百). 비단은 오백 년을 가고, 한지는 천 년을 간다는 말이다.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지는 잘만 보관하면 삭아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한 것을 물에 걸러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이다. 닥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한지는 우리 것을 최고로 여겼는데, 아마도 질 좋은 닥나무에 종이를 만드는 이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전문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인 지장(紙匠)이 존재했다. 닥나무를 베고, 삶아서 말리고, 벗기고, 또 삶아 두드려 썬고, 뜨고 말려서 두드리고... 고행과 같은 반복의 시간을 지나서야 탄생하는 한 장의 종이는 수고와 정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글방에서는 문방사우(文房四友)로 종이·붓·벼루·먹을 꼽았고, 농가에서는 농가삼보(農家三寶)로 종이·옷칠·삼베를 손꼽았다고 하는데, 문방사우나 농가삼보 모두 종이가 그 첫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종이가 선조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선비에게는 책의 재료가 되고, 서민들은 문풍지와 장판지뿐 아니라 속옷이나 그릇도 한지로 만들었을 정도니 한지는 몸과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종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5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분창 작품 장용훈



Sulwhasoo

May/June 2012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은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예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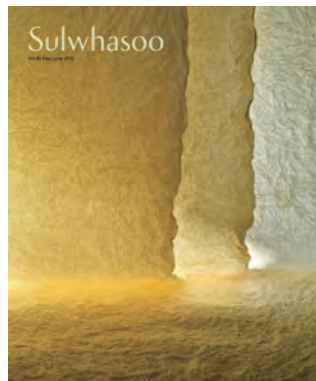


40



46

다시 보는 우리 유물	외래 문화의 수용과 정착, 청자상감국화운학문편병	06
집 안 단장	신비로운 빛을 담은 청자의 변신	08
물단장	백색미인(白色美人)	10
한국 문화 읽기	창살 Muntin	12
피부 섬기기	아름다운 얼굴빛은 해사함에서 비롯되니	14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작곡가 이루마, 행복은 봄을 타고 날아든다	20
격조 높은 삶	동방예의지국	26
예절 바르다	가정의 화목을 통해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다	28
어우러지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다	32
살펴보다	내면의 덕성과 올곧은 예절로 아름다움을 가꾼 옛 여인들	38
세계 디자인 호텔	종려나무 숲 속에 펼쳐진 은하수 사막	40
아트 클래스	투명한 천으로 한 땀 한 땀 지은 공간의 족적	46
전통과 현대의 조우	네 개의 손 그림과 만난 설화수	52
설화문화전 장인을 만나다	4대째 기르고 삶과 풀어 떠낸 전통 한지(韓紙)	60
명사들의 그릇장	작가 이현정, 담다	66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학문과 휴식을 한자리에서 한 몸으로 대했던 그들	68
국악 기행	사설(辭說)로 세상을 향해 통성을 내지르는 광대	74
설화도감	자연 정원으로의 초대	78
설화백서	새로운 미의 기준을 세우다	82
설록다원	제주의 마음을 담다	84
설화수 스파	귀한 피부를 위한 설화수의 과학적인 처방	86
문화 즐기기	시대를 아우르는 러브 스토리, 뮤지컬 〈닥터지바고〉	88
마음 단장		90
설화수 뉴스		92
전통공예 배우기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 in 2012 will be the artworks from the 2011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e artwork on the cover of May/June issue is the Korean paper of Master Yong Hoon Jang. The Korean paper created by the traditional master who takes 99 arduous steps of the traditional method proves the superiority of Korean paper that does not degrade after a millennium.

2012년 설화수 매거진 표지는 2011년 설화문화전 작품들과 함께한다. 5/6월호에 소개되는 작품은 한지장 장용훈의 한지. 아흔아홉 번의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며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장인의 손길로 띄워내는 종이 한 장은 천 년이 지나도 색이 없는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보인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구분창 작품 장용훈**

●발행인·서경배 ●편집인·권영소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7가 181번지 ●제작·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문의·최상구 02)709-5401 ●편집·디자인·Solution Co., Ltd.·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인사·문비·디자인·남경화 마케팅·윤여찬 ●발행일·2012년 5월 1일(통권 제50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인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래 문화의 수용과 정착

청자상감국화운학문편병

언젠가 '글로벌'이 사회의 화두였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국제간 교류나 대화가 워낙 일상이 되어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촌스러워졌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 일상이 되어 자국의 문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이제는 IT기술이 발달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기호를 가진 여러나라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방과 공유가 화두인 시대이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가장 개방적이었던 시대로 통일신라와 고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고려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통로로 북송·남송·원·거란 등과 문화를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고려에 귀화하여 별도의 직업을 가지면서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머물렀다. 청자, 불화 등 귀족적이고 유려한 문화를 창조했던 고려에 그와는 다른 문화를 유입시킨 것은 외래 귀화인이나 교역을 위해 온 사신과 그들이 가져온 물품이었다. 이러한 외래 문화를 수용하고 변화시킴으로 인해 고려 문화는 훨씬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다.

상감청자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13세기에 전통적인 고려청자의 기형 외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보이는 것이 편병(扁瓶)이다. 청자 편병은 매병(梅瓶)의 변형 형태로 매병의 양쪽 몸체부분을 다듬어 납작하게 만든 것이다. 매병은 입구가 좁고 어깨가 넓으며 허리가 긴 형태의 병을 말하는데, 이는 중국 송대 자주요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고려로 전파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매병은 고려와 조선 도자의 대표적인 기형이 되었다.

청자편병은 13~14세기에 유행하였던 기형으로 원 간섭기에 원문화의 영향이나 원을 통한 서역, 서방 문화의 간접적 영향으로 제작되었다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편병은 삼국 시대의 도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도기편호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도기편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청자편호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3~14세기 고려는 원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불상이나 탑에서 라마불교의 영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시대이다. 당시 원나라의 장인이 와

서 불상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거나, 고려가 원나라보다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경과 불화를 제작하여 주기도 하는 등 고려와 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하였고 청자편병도 두 나라 교류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화는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 편병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고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청자상감편병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2~13세기에도 짧은 목에 살짝 외반된 구부를 가진 납작항아리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구연이 반구형이고 동체는 호의 형태와 매병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어깨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경우도 있다. 그러나 13세기 편병은 구연 부분이 어깨로 바로 연결되었고 어깨가 높다. 보통은 동체 하부에서 형태가 반전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는데, 아모레 퍼시픽미술관 소장 청자상감편병의 경우 어깨가 중간 부분까지 내려왔고 동체를 눌러서 편평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편병의 형태와는 달라 이러한 형태는 외래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 그 후 정착되어 조선 초기 분청사기 편병으로 이어졌다.

청자편병은 주로 흑백상감을 사용하였고 몸체 정면에는 능화형의 창을 마련하여 국화문·모란문·연화문을, 구연부와 하단부에는 연판문을 배치하였다. 측면에도 개별적인 문양을 넣어 각각의 문양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편병은 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두 마리의 학이 마주보고 있도록 제작되었다. 능화형의 창은 중국적인 전통이라 볼 수 있다. 그 안에 고려 전통적 문양인 국화를 넣고 측면에 보다 자유로운 운학문을 넣었으니 전통과 외래의 절묘한 조화이다.

전통과 외래의 절묘한 조화로 만들어진 청자편병을 우리는 우리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배운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소의 상처도 있겠지만 더 큰 나를 기약해주니 나와 똑같은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S

글 문선주(아모레퍼시픽 미술관 학예연구실)

신비로운 빛을 담은 청자의 변신



유약이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며 같은 색을 내는 법이 없는 청자는 청색의 유약이 썩어졌다는 뜻으로, 청유자기의 줄임말이다. 특히 그 빛깔과 형태적 아름다움이 빼어난 고려 시대 비색(翡色) 청자는 당시 왕실과 귀족층만의 전유물이었다. 수요층의 취향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했던 청자의 형태와 무늬. 우리가 청자를 통해 고려 시대의 삶을 추적해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때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었던 청자는 현대에 와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창적이고 섬세했던 무늬를 지닌 청자의 순수 계보를 잇는 것에서부터 아이스크림을 담은 볼, 나무처럼 다른 소재와 함께 제작되는 등 현대적인 미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청자, 이젠 곁에 가까이 두고 즐겨 사용해보자. 고려 시대 예인들이 사랑해 마지않았던 청자의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빛깔을 보는 즐거움과 생활의 아름다움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운(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광주요(02-3446-4800), 금단지(02-517-7243), 바다디자인 아틀리에(02-592-5342), 박혜리 공방(02-542-4692),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이도도자기 (02-722-0756), 정소영식기점(02-541-6480), 토요(02-722-1260), 한국공예 문화진흥원(02-733-904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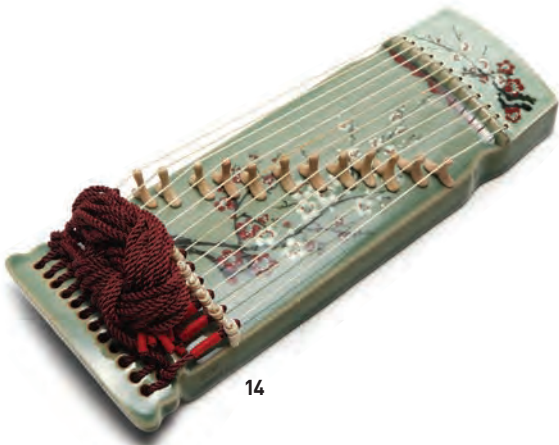
7



8



9



14

1 나비가 찻잔에 내려앉아 쉬는 듯한 느낌의 청자 찻잔은 이영희 작품으로 금단체. 2 연잎 같은 청자 접시는 광주요. 3 전통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낸 청자 찻잔 세트는 김판기 작품으로 한국공예 문화진흥원. 4 수저받침과 티스푼으로 이용 가능한 다기능 청자 아이템은 토요. 5 손잡이로 달린 양중맞은 집이 재밌는 사각 함은 이동하 작품으로 한국공예 문화진흥원. 6 시원한 옥빛으로 유약 처리한 도자 조명은 바다디자인 아틀리에. 7 달팽이 모양이 인상적인 청자 차통은 이영희 작품으로 금단체. 8 대나무 손잡이와 나무 컵받침이 현대적인 청자 찻잔 세트는 손민영 작품으로 정소영식기장. 9 악살스러운 물고기 모양의 명함꽂이는 박혜리 공방. 10 연꽃 모양에서 모티프를 따온 청자 접시는 이은범 작품으로 정소영식기장. 11 고급스러운 청자 투자 화병은 토요. 12 옥빛이 담백한 귀여운 주기 세트는 이도도자기. 13 단아한 디지털 접시는 이도도자기. 14 아름다운 꽃이 그려진 청자 가아금은 권오화·김경미 부부 작가 팀인 금모울요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10



13



12



11

백색미인(白色美人)



탐스러운 꽃들이 만개하고 거리엔 푸른 자연이 가득한 5월. 모든 만물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때 남다른 몸단장을 위해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가장 현대적이며 때론 사랑스럽고, 때론 순수함을 넘어서 고매함을 내주는 빛깔. 바로 백색 소품들이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색이기도 한 백색은 색에 대한 서양식 갖대인 채도나 명도 같은 개념과는 사뭇 다른 순수와 순결의 정서를 포함하는 색이며,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청렴결백과 순결의 이상적인 세계와도 잇닿아 있다. 화려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맑고 단아한 자태에서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았던 선조들의 품격 높은 미의식을 닮은 백색은 가장 전통적인 색인 동시에 올봄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선보인 가장 현대적인 색이다. 은은한 백색의 꽃을 닮은 반지부터 단아한 자태의 핸드백, 브로치까지 눈이 시리게 빛나는 백색 미감의 향연으로 초대한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814-0250), 그랜시아(070-7622-0325), 누브티스(02-735-0346), 닌(02-743-7740), 램(02-739-8217), 비아케이 스튜디오(02-6083-8399),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스토리(02-735-7101), 스페이스두루(02-783-1354), 차이(02-333-6692), 하늘물빛(010-7688-8433)



2



3



4



5



6



7



8



9



14



10



13



12



11

1 학과 꽃이 조각된 옥가락지와 산호·진주로 장식한 옥비녀. 상아 뒤꽂이는 엄익평 작품으로 가원공방. 천으로 만든 꽃 모양 머리 장식 코르시주는 김영진 작품으로 차이. 2 바람에 나풀거리는 꽃잎 같은 반지는 비아케이 스튜디오. 3 은과 옻석로 만든 동양적인 브로치는 남화경 작품으로 스페이스두루. 4 백색 옻석와 은으로 만든 기품있는 반지는 그랜시아. 5 버선코를 닮은 독특한 디자인이 정감 있는 신발은 램. 6 가죽 매듭과 스팽글 장식이 포인트인 백색 가방은 누브티스. 7 레이스 장식의 목걸이는 비아케이 스튜디오. 8 백색과 청색의 조화가 멋진 옷칠 반지는 유수혜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9 가죽으로 만든 민화 속 호랑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무겁지 않은 비녀 세트는 스토리. 10 쇠가죽 재질에 손바느질로 마감한 골프채 케이스는 닌. 11 꽃 모양으로 재단해 엮은 머리띠는 비아케이 스튜디오. 12 뱀피 가죽에 동그란 달을 닮은 자개 장식이 고급스러운 클러치 백은 스토리. 13 면으로 만든 귀여운 앞치마는 박혜리공방. 14 봄꽃을 수놓은 휴대용 티슈 케이스는 이병숙 작품으로 하늘물빛.



창살 Muntin

태양의 빛을 품은 창호지와 살대의 리듬감이 그려낸 걸작, 창살.

서양은 자연을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물을 크게 지어 공간을 넓게 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싶어 했고, 동양은 자연을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여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물을 크지 않게 지었다. 대신 창과 문을 사방에 내서 열어둠으로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면에서 보자면 동양의 건축이 서양의 건축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West, the people perceived nature as a subject and intended to build the largest buildings possible to dominate nature. In the East, architectural structures were kept small because the people believed that they live in nature. Instead, they made windows and doors on every wall and kept them open to bring nature into the house. In philosophical terms,

자연은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양의 창문은 외부의 시선을 단절하면서도 자신은 밖을 훤히 내다본다. 그렇지만 우리의 창문은 닫아도 공기가 숨을 쉬고 소리가 드나드는, 닫았지만 열린 구조다. 자연을 관조하는 출구, 공기와 빛과 소리를 받아들이는 입구로서 실내의 온도와 빛을 조절했던 창문. 이러한 창에 창살은 문양을 통한 장식성을 더해준다. 장식성은 순수한 조형성일 수도 있고, 추가적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성일 수도 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 뜻은 화엄의 상태를 상징하는 불교적 의미를 갖는 꽃살, 천지 만물의 작동 원리를 규칙화한 유교의 정신인 주역의 괘를 닮은 기하 문양 창살이 그것이다.

eastern architecture is much larger than western architecture in scale.

또한 위치와 기능, 용도에 따라 구분 짓기도 한다. 창호지를 발라 채광을 도모하는 일반적인 창문에는 세살이나 띠살이, 이보다 격조 높은 건물에는 격자살이나 격자살을 더 화려하게 꾸민 교살이 애용됐다. 화려한 완자살은 안방에, 아자살은 그 모양이 단정하여 사랑방에 쓰였다. 평행과 복선 그리고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살의 자태는 햇빛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는 창호지의 반투명성과 더해지며 자연 조명의 역할을 한다.

What does it mean to bring nature into the house. The windows in the West isolate the inside from the outside, but allow you to look outside. On the other hand, the windows of Korea are always open even when they are closed as they transmit air and sound. The windows controlled indoor temperature and light as the exit that observes nature and the entrance that admits air, light, and sound. Muntin adds decorative elements to the windows with patterns. Decorative elements may be purely figurative or symbolic with additional meaning. Floral frames look colorful, but symbolize the Buddhist teachings. Geographical frames resemble the pattern of Juyeok, the book of Confucianism that organized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e.

인간이 거하는 실내 세계와 자연인 외부 세계와의 일체를 이루는 기준, 그 중심엔 창과 문이 있다. 그리고 거기엔 살대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햇빛과 달빛을 조각해내던 미의 극치, 창살이 있다. S

The translucence of the window paper is an important figurative element that gives variety to the geometric pattern of muntins. The window paper displays various colors from gray to earthy yellow according to the color of sunlight.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참고 문헌 《한국의 창·문》(임석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의 전통 문양》(임영주, 대원사)

Windows and doors exist in between the indoor world where people dwell and the outdoor world in nature and muntins are the extreme of beauty that sculpt the sunlight and moonlight that shine through them.



아름다운 얼굴빛은 해사함에서 비롯되니

설화수가 추구하는 해사함이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
부드럽지만 강한 생명력, 자연을 담은 향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새로운 메이크업 라인인 채담(采淡)을 통해 실현되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밭을 보노라면, 바삐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된다. 코끝에 닿는 꽃향기와 형형색색의 꽃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각의 꽃이 고유의 꽃말이나 의미를 지니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해주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오감으로만 즐기는 단순한 이유로 꽃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꽃은 단지 이름과 형상만 다를 뿐 그냥 '하나의 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꽃의 일차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꽃이 지닌 수많은 이야기와 역할은 예로부터 수없이 회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꽃으로 복숭아꽃, 즉 복사꽃을 빼놓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도화검(桃花臉)'이라 부르기도 했고, 복숭아처럼 붉고 아름다운 색을 '도화색(桃花色)'이라 했으니 복사꽃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뛰어난 미인에게 "복사꽃이 부끄러워하고, 살구꽃이 사양을 한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미인을 위한 찬사로 복사꽃에 비유하는 것 만큼 최고의 찬사가 없으리라.

복사꽃은 단순히 외형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동의보감>에는 얼굴을 곱게 하고, 밝고 화사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으며, <신농본초경>에는 안색을 좋게 하고 피부를 매끄럽고 윤택하게 해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복숭아꽃차를 마시면 연분홍빛 복사꽃처럼 혈색이 도는 피부로 가꿔준다고 하여 규방 여인들은 복숭아꽃차를 즐겨 마셨다고 한다.

온화한 빛, 피부 보호, 그리고 은은한 향의 채담메이크업

설화수에서는 이러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라인으로, 꽃을 통해 식물이 세상과 만나듯,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통해 빛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채담(采淡) 메이크업 라인을 선보인다. 채담 메이크업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근원은 나만의 자연스러운 미

자외선 차단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설화수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SPF 25/PA++). 커버력은 뛰어난면서도 리퀴드 버블 쿠션 타입의 제형이라 부드럽게 발리고, 보습 성분이 증발되지 않아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The flower gardens filled with colorful blossoms stop your footsteps. It is not just because the scent of flowers that diffuses into your nose and the colorful blossoms touch your heart, but it is also because each flower's original statement or meaning tells various stories of life. If you like flowers simply through your five senses, the numerous flowers that you know are 'just flowers' with different names and shapes. Many people have talked about the many stories and roles of flowers beyond their primary beauty since the old times.

Among them, there are the peach blossoms that are known as the symbol of beauty. As the face of a beautiful woman was often compared to peach blossoms and the beautiful redness of peaches was called the peach color, peach blossoms represented beauty. Also, beautiful women were described as, "A peach blossom is bashful and an apricot blossom refuses," comparing a woman to peach blossoms was considered the best compliment.

Peach blossoms were not simply about the appearance. <Donguibogam> wrote that peach blossoms refine your face with clarity and brightness, whereas <Sinnongbonchogyong> wrote that peach blossoms correct the complexion and improve smoothness and radiance of your skin. Therefore, traditional women enjoyed drinking peach blossom tea as it enhanced the vitality of your face as light pinkish peach blossoms.

Sulwhasoo introduces Chaedam Makeup, the new line that completes the beauty of women by expressing radiant vitality as plants meet the world through flowers.



채담 스무딩팩트(SPF25/PA++)는 숨털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밀착감 덕분에 하루 종일 환
한 얼굴빛을 유지해준다.

감을 찾아내 새로운 균형을 통해 부드러움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은 메이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얼굴처럼 편안하고,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하루 종일 평온함과 해사함을 선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채담 메이크업의 미의식은 복사꽃을 통한 온화한 빛, 살구씨로 전하는 피부 보호, 그리고 선암사의 매화가 전하는 편안한 향이다.

복사꽃잎이 내는 부드러운 빛깔의 비밀은 바로 꽃잎 표면의 돌기 구조 때문인데, 표면이 입체적인 돌기 모양으로 주름이 잡혀 있어 빛을 사방으로 흩어내며 해사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그 연유다. 복사꽃의 이러한 외형적인 특성을 활용한 덕분에 채담 메이크업 라인은 이물질의 부착이 어려워 물과 땀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화장막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

복사꽃이 은은한 피부 빛깔의 열쇠라면, 살구씨는 피부 보호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명나라 때의 한의학 서적인 <본초강목>에는 살구씨를 이용한 처방이 무려 200여 가지나 전해질 정도로 그 쓰임새가 다양해 '약방의 살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살구의 효능은 뛰어나다. 채담 메이크업 라인에 함유된 보습 코팅 파우더의 피부 보호 효과 덕분에 외부의 거친 환경에도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름다움을 논하면서 빛깔과 효능에 향을 빼놓을 수 없다. 1년 365일, 꽃이 지지 않는다는 전라남도 순천의 선암사에는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매화 향이 그득하다. 우리나라 매화의 정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선암사의 백매, 홍매 등 고목에서 뿜어내는 깊은 향취는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선암사의 매화 향은 일반 매화 향과는 달리 따뜻한 꽃 향이 더욱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은은하고 깊은 향취가 더해져 사람들을 감화시킬 정도다.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미의 철학

설화수의 채담 메이크업 라인은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촉촉하고 매끄럽게 피부를 정돈해주는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인

The essence of beauty pursued by Chaedam Makeup is finding your natural aesthetics to establish new balance for smoothness and comfort. Its philosophy of beauty is to give comfort to your face even with makeup, protect your skin from external aggressors, and leave your skin peaceful and radiant even after a long day of makeup. The aesthetic of Chaedam Makeup is the moderate light of peach blossoms, the protection of apricot seeds, and the comforting fragrance of the Prunus mume of Seonamsa Temple.

The secret behind the moderate radiance of peach blossoms is the embossed surface of petals. The 3D embossing on the surface diffuses light to all directions to express radiance.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appearance, it is resistant to impurities, strong against water and perspiration, and holds clean makeup for a long time.

If peach blossoms are the key to subtle skin radiance, apricot seeds are the source of its protective capacity. <Bonchogangmok>, the traditional medical book from the Ming Dynasty, introduced about 200 formulas using apricot seeds in various ways. The moisture coating powder in Chaedam Makeup protects your skin from external aggressors to prevent and heal damage.

When discussing beauty, you cannot miss out the fragrance in additional radiance and efficacies. Seonamsa Temple in Suncheon, Jeollanam-do, where flowers bloom all year, is filled with the scent of Prunus mume that comforts the body and mind of modern people. Seonamsa Temple, where you can absorb the essence of Korea's Prunus mume with your body, will purify your body and mind with the deep fragrance of various trees of Prunus mume.



촉촉하고 매끄럽게 피부를 정돈해주어 메이크업의 효능을 높여주는 메이크업 베이스인 채담 스무딩메이크업베이스(SPF 25/PA++). 자외선 차단 및 주름 개선 제품이다.

채담 스무딩메이크업베이스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 피부 바탕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각질 케어와 수분 공급, 그리고 피부 위에 얇고 유연한 이중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 밀착력을 높이고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향상시킨다. 해사한 복숭아빛과 살구빛으로 피부에 바르는 즉시 시원하고 촉촉함을 부여해줄 것이다.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은 마치 연유처럼 부드럽고 폭신한 감촉의 리퀴드 버블 쿠션 타입이라 피부에 발랐을 때 뭉치지 않고 빈틈없이 고루 감싸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한 살구씨 오일, 복숭아씨 오일, 꿀로 파우더를 코팅한 채담 보습 코팅 파우더의 피부 보호 효과는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 표현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는 채담 스무딩팩트는 돌기 구조의 복사꽃 형태의 파우더가 발하는 빛의 산란 효과 덕분에 가루 날림이나 답답함 없이 가벼운 밀착력을 선사한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유분기가 많은 피부 타입인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다음 단계에서 파우더로 살짝 정돈하고 채담 스무딩팩트를 사용하면 더욱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 피부 타입이라면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만으로도 끈적이거나 번들거림 없이 마무리되므로, 채담 스무딩팩트는 수정 메이크업에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쁜 아침 시간에는 채담 스무딩메이크업베이스와 채담 스무딩팩트, 두 가지 단계만으로도 해사한 피부를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는 시대는 지났다. 내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때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기운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 거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생명력, 강렬함보다는 자연을 벗어나며 발하는 은은함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미의 기준이며, 설화수가 새롭게 선보이는 채담 메이크업 라인이 추구하는 미의 철학이기도 하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The fragrance of Prunus mume in Seonamsa Temple is richer than that of ordinary Prunus mume. The subtle yet deep fragrance touches the sentiments of people.

Sulwhasoo's Chaedam Makeup Line consists of three products. Chaedam Smoothing Base, the makeup base for supple and smooth skin texture, solidifies the skin foundation before makeup. It exfoliates, moisturizes, and forms a thin double protective barrier on your skin for long-lasting makeup. It will instantly cool and plump your skin with the radiance of peach and apricot blossoms. The following step is Chaedam Smoothing Foundation, which is a liquid bubble cushion product that is as smooth and cushiony as condensed milk. When applied to your skin, it completely wraps your skin without lumping. Also, Chaedam Moisture Coating Powder coated with apricot seed oil, peach seed oil, and honey, protects your skin from external aggressors and damage.

Chaedam Smoothing Pact, used to finish your skin expression, offers a light coverage without scattering or heaviness as the embossed structure of powder in the shape of peach blossoms diffuses light. If the weather is too hot or your skin has excess oil, apply a little bit of powder after foundation and finish with Chaedam Smoothing Pact for a flawless skin expression.

If your skin feels dry, Chaedam Smoothing Foundation is enough to finish your skin without stickiness or excess shine. Chaedam Smoothing Pact should be used for correcting makeup. In the busy morning, you can create radiant skin only with Chaedam Smoothing Base and Chaedam Smoothing Pact.

작곡가 이루마

행복은 봄을 타고 날아든다

2집에 실린 감미로운 〈MAY be〉란 곡처럼, 그에게 5월은 언제나 행복을 선사했다. 첫 앨범이 세상에 나온 것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도 찬란한 계절에 꿈처럼 현실이 됐다. 그가 들려주는 음악도 같은 선상에 있는 듯하다. 이루마의 음악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편안하다. 간질간질, 사람들의 감성을 쓰다듬는다.





2001년 5월, 첫 앨범 〈Love Scene〉이 세상에 나왔다. 열한 살 때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영재 음악학교인 퍼셀스쿨을 거쳐 킹스칼리지 런던을 졸업하면서 축적했던 ‘그만의’ 음악이었다. 결과물은 대학 시절에 전공했던 음악과는 사뭇 다른 색채였다.

“대학에서 현대음악 작곡을 전공했어요. 전위적인 색채가 강해서 항상 해설이 필요한 음악이었죠. 그러다 느꼈어요. 불협화음과 같은 난해한 곡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더 대중적인 음악을 작곡하고 싶었죠.”

강의실에 가는 대신 길거리 공연을 보거나 맥주를 마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에 목말랐다. 당시에는 그것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손에 익숙했던 피아노로 곡을 스케치했다. 4집에 실린 ‘poem+(시처럼)’이란 곡도 대학생 시절에 작곡한 작품이다. 풋풋했던 젊음은 머릿속에 떠오른 악상을 거리낌 없이 세상에 토해냈고, 한국에 귀국한 뒤 그것은 뉴에이지 앨범으로 탄생됐다.

돌이켜보면 첫 앨범부터 3집까지, 인간 이루마에겐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표작으로 기억하는 ‘River Flows In You’ ‘Kiss The Rain’도 2, 3집에 실렸던 곡들. 당시 곡의 영감은 소나기처럼 불현듯 그의 가슴에 내렸다. 삶의 소소한 기억들이 음표들을 끌어다가 아름다운 형태로 탄생되는 기분이었다. 가령 영국에서 녹음 작업을 마쳤던 ‘Kiss The Rain’은 유독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에서 영감을 얻었다. 워털루 다리를 건너 시내를 지나는데 영국의 날씨가 그렇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를 맞으며 집에 도착해 순간의 느낌을 단번에 악보에 옮겼다.

“‘River Flows In You’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탭댄스의 일종인 리버댄스(River Dance)를 보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어느 날인가 피아노를 치는데 제 손가락의 움직임이 마치 리버댄스의 발동작과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죠.” 물론 그에게도 종종 불안이 엄습하기도 한다. 혹 영감의 창고가 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슬럼프다. 군대에서 병장 시절부터 썼던 곡들, 그러니까 6집 〈P.N.O.N.I (PIANO AND I)〉를 출시하고 나서가 딱 그랬다. 이제 더 이상 피아노곡은 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가 고갈되는 느낌이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진행했던 첫 콘서트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바람에 생각만큼 호응이 좋지 않았다. 음악가에게 꽤나 지독하다는 슬럼프가 찾아왔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소모했다. 여기에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까지 겹치면서 2008년부터 2년 남짓 동안은 곡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불행과 행복은 손을 맞잡고 그에게 찾아왔다. 2007년 5월, 그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도 미치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였다. 스물여덟이란 늦은 나이에 해군에 입대해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수양록을 써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 어찌면 작곡가에게 잔혹할 만큼 획일적인 일상 속에서 가족은 커다란 행복이자 진한 그리움이었다.

“당시 아내에게 전화로 반복했던 얘기는 ‘걱정하지 마. 제대하면 잘해줄게’뿐이었어요. 사실 우리 부부에게 신혼 생활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제주도도 짧은 여행을 다녀온 것이 전부였죠. 결혼 준비를 하고 집을 알아보는, 모든 과정은 오로지 아내의 몫이었으니까요. 많이 외로웠죠.”

신혼이 실종됐다는 말은 그가 제대하기도 전에 딸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007년 5월에 결혼해 2008년 7월에 딸을 얻었고 같은 해 8월 제대했다). 사회 복귀와 동시에 남편이자 아빠의 타이틀이 턱 하니 주어졌다는 얘기다. 아내의 출산에 함께하지 못해 유독 미안했던 딸 ‘이로운(이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의 한글 이름)’은 이제 다섯 살배기 꼬마 숙녀로 성장했다. 유난히 피부가 하얀 데다 불이 통통하고 홍조를 띠어 이들 부부에게 ‘푸티 쿠송

(작은 돼지)’이란 애칭으로 불린다.

“가장 사랑스러울 때요? 당연히 잠에 폭 빠졌을 때죠. 하하하. 속눈썹이 길어서 정말 예쁘거든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의 존재를 알았을 때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하거든요. 딸이 대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멋진 아빠로 불리고 싶어요. 곱게 늙어야지, 생각합니다.”

딸 얘기가 나오면 그의 수다는 화수분처럼 멈추지 않는다. 특히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DNA를 발견할 때면 신기하면서도 무척 뿌듯하다. 가령 꽤 어려운 리듬이나 박자를 복사하듯 따라 할 때 음악가인 아빠의 유전자가 딸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요즘 딸의 주된 주문은 (뮤지컬을 자주 보아서인지) 아빠에게는 피아노를 치게 하고 자신은 춤을 추는 뮤지컬 역할극이다. 아빠 이루마는 정말 궁금하다. ‘넌 정말 어느 별에서 왔니?’

아이는 무지개 같은 행복을 선물했다. 아내를 통해 새로운 생명체가 세상에 나오고 그 아이가 쑥쑥 자라 자신의 유전자를 증명이라도 하듯 음악적 재능을 뽐내는 삶. 이 모든 것은 꽤나 근사한 경험임에 분명하다. 훗날 딸이 결혼할 때 그는 잠시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되어 ‘Loanna’를 연주할 생각이다. Loanna는 딸의 영어 이름으로 군복무 시절에 딸을 생각하면서 써 내려간 곡이다.

2012년 5월, 올해로 이루마는 데뷔한 지 11년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데뷔 10년을 기념하는 음반 〈The Best Reminiscent 10th Anniversary〉를 발표했고, 올해 초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감행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럽에 진출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독일의 유명 텔레비전 쇼에 출연해 베를린 쇼 발레단 안무에 맞춰 자신의 곡을 연주했던 것이다. 동양인으로서 중국인 피아니스트 량량 이후 첫 출연인 만큼 유럽에서의 인기를 대한민국에 새삼 증명했던 기회였다. 실제로 일정을 마치고 뒤풀이 겸 스태프와 함께 바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는 데 자신의 음악이 흘러나와 소름이 돋기도 했다. 올해 목표가 음악가로서 유럽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면, 10년, 20년 뒤의 꿈은 대한민국에 음악학교를 세우는 일이다. 학교의 모습은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음악학교인 퍼셀스쿨을 꼭 닮았다. 언덕배기에 자리한 데다 학교 정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지만 자유로운 배움터다.

“언덕에 위치해서 숲이 보였으면 해요. 잔디밭에선 아이들이 공을 차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있겠죠. 학교 건물은 집처럼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구분 없이, 예술이란 큰 틀에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굳이 자신이 교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친구처럼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곡을 수정하거나 영감을 주고 싶다. 그는 분명 कै말색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편안한 모습으로 교정을 거닐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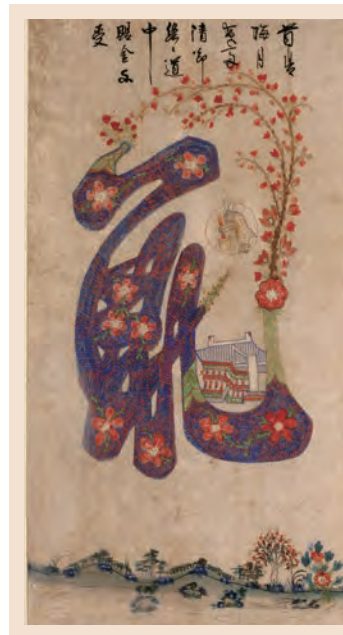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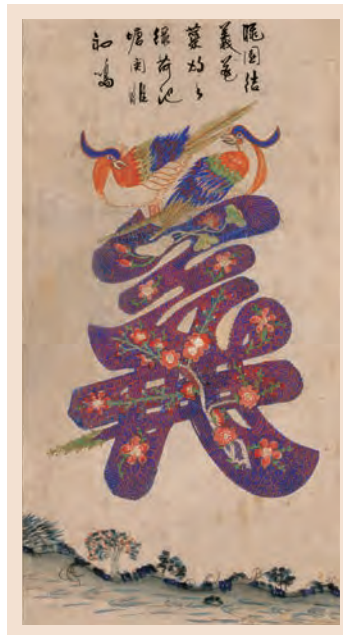
“삶을 살면서 제 자신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작곡을 할 때도, 한국에 귀국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생을 했을 때도 그랬죠. ‘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야. 뭔가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을 거야’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고백하자면 그는 한 번도 피아노 코드를 배운 적이 없다. 신기하게도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익혔을 뿐이다. 교회에서 코드 악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주했을 때도 자신의 모습이 마냥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래서일까. 그는 음악 작업을 하면서 종종 생각한다. ‘신이 자신을 조종해서 영감을 주고 곡을 쓰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음악인 이루마가 피아니스트보다 작곡가란 타이틀을 더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1년 동안 사람들의 심장을 어루만지듯 아름다운 곡들을 세상에 쏟아낸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는 신이 편애하는 아름다운 악기일지도 모르겠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스타일리스트 이수명 도움 주신 곳 장광호카루소(02-547-0753), 톰브라운, 갱(02-3447-7701), 타미힐피계(02-546-7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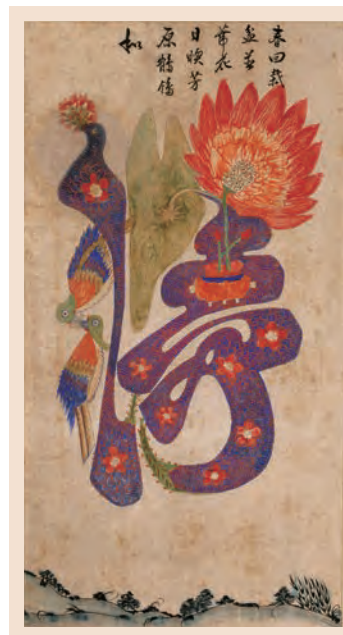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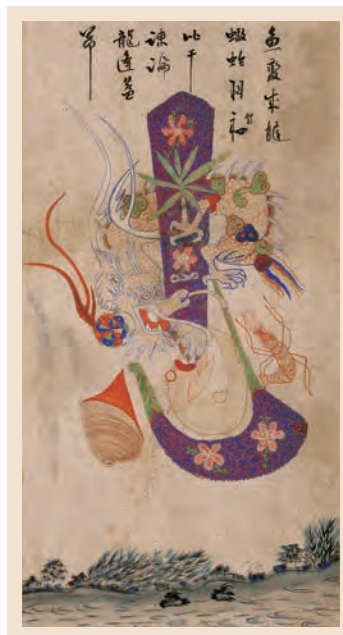






동방예의지국

동쪽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라는 의미의 동방예의지국은 그 어원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예의에 대한 기본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몸과 마음의 수양을 예의라는 이름으로 실천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겨본다면 현대인의 각박한 일상이 조금은 여유로워지지 않겠는가.



가정의 화목을 통해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다

선조들이 중시한 ‘가화만사성’의 정신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가정의 안정이 사회 안정의 근본이라는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옳게 세워져야 한다는 관념은 전통적인 관혼상제의 모든 과정과 일상생활의 예절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진면목, 애뜻한 가족 사랑

“네 처가 만들어 보낸 단령을 받으니 기쁘고 마음에 위로가 된다. 하지 만 공한 살림에 어찌 굳이 이를 만들었더냐. 도리어 미안하다. 흰 접부 채 두 자루와 옷칠한 부채 두 자루, 참빗 다섯 개, 떡 한 정, 붓 한 자루 를 보낸다. 접부채와 참빗은 네 처에게 전해주면 좋겠구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자애로움이 가득한 이 편지글을 쓴 사람은 조선 시대 대학자인 퇴계 이황이다. 어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관복 을 만들어 보내자 마흔 살의 유학자는 아들에게 이토록 다정다감한 편 지를 쓰면서 며느리를 위해 부채며 참빗까지 손수 마련해 보내는 살뜰 함을 보였다. 역사에 획을 그은 위대한 유학자로만 알고 있었던 한 인 물의 이면엔 이처럼 가족에 대한 정을 숨기지 않는 평범한 아버지로서 의 면모가 숨어 있었다.

조선 시대의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기만 했을 것이라는 짐작도 어찌 보면 편견일지 모른다. 그들이 내세운 가부장주의의 본 질은 결국 가장으로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의 화목이 세상만사 의 기틀이라 여기는 사고방식이었기에, 가족과 자식들에 대한 마음은 현대인들보다 더 깊고 끈끈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도 지방에 현감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가족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1796년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만 봐도 그가 얼마나 가족을 사 랑하고 잔정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추장을 작은 단지로 하나 보낸다. 사랑에 놓아두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손수 담근 것인데 아직 잘 익지는 않았다. 맛이 어떤지 자세히 알려다오.”

국가의 관리이자 수많은 저서를 남긴 엘리트 학자이기도 한 초로의 남 성이 자식들에게 보낸다고 쓰그리고 앉아 손수 고추장을 담그는 장면 은 오늘날의 아버지들도 선뜻 흉내 내기 어려운 정감 어린 모습이다.

또 환갑의 나이에 손주를 보게 된 소식을 듣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응애응애 하는 소리가 종이 위에 가득하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산후 의 복통에는 반드시 생강나무를 달여 먹이도록 해라. 두 번만 복용하 면 뚝 멎을 게다”라며 며느리를 위한 산후 조리 지침까지 구구절절 일 러주었다.

다산 정약용의 애뜻한 부정도 빼놓을 수 없다. 마흔의 나이에 강진으 로 유배를 가 오랜 세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부부 금실이 좋아 자녀를 아홉 낳았으나 그중 여섯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유배지에서든 항상 가족을 생각하며 아들딸에게 수많은 편 지를 보내 자녀 교육을 실천한 아버지였다. 늘 아내를 걱정하며 아들 들에게 “어머니를 잘 보살피드려야 한다”고 당부했고, 비록 몸은 떨어 져 있으나 자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과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 았다.

귀양 간 지 10년쯤 되던 어느 날, 아내 홍씨 부인은 자신이 시집을 때 입고 왔던 다홍치마 여섯 폭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이에 다산은 빗바 램 아내의 치마를 재단해 아들들에게도 보내고, 조그만 가리개를 만 들어 매화나무에 새가 한 쌍 노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 어 시집가는 딸에게 보냈다. 비록 귀양자의 집안이라 가난과 업신여 김에 시달리고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식구끼리의 애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다.

가정의 화목이 세상사의 근본이라는 가치관

정약용이 생각한 화목한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각자가 부모로서, 부 부로서, 형제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을 뜻했으며,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가 기본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의 범위를 넘어 친척 간의 화목까지 중시



한 대목이 인상적인데, 친척을 대함에 있어 “산이나 늪 같은 넓은 도량”을 지니고 “어린아이처럼, 속없는 사람처럼, 뼈 없는 벌레처럼, 참선하는 중처럼” 처신해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는 아름다운 옥으로 갚아주고, 저 사람이 칼이나 창으로 들이대면 나는 맛있는 술로 대접해주면 눈을 흘기고 화를 내어 닦고 소란을 피워 집안을 뒤엎은 뒤에야 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이는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두루 적용될 만한 지혜로운 충고라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율곡 이이도 <성학집요>를 통해 집안의 화목을 강조하면서 “친하를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다 함은 집안을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격몽요결>에서는 집안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거론하며 “집안에 예법이 있고 어른이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이 나쁜 곳으로 빠질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중 “천륜(부자, 형제)으로 결합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고 반목하면 인륜(부부)으로 결합한 관계도 따라서 편안할 수 없게 된다”는 조언은 가족 관계의 균형에 대한 선견지명을 보여준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요즘 사람들이 조선 시대 가족주의에 대해 막연히 짐작하는 남존여비 사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여성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예를 다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세기 이전의 조선은 시집살이보다 처가살이가 더 일반적이며 재산 상속이나 제사 모시기도 아들딸 구별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남녀가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였다. 즉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가족주의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고 아끼는 가족주의에 가까웠다. 조선 시대 아버지들이 평생에 걸쳐 실천한 가족애에서 권위주의보다는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중시한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심신의 균형을 실천한 생활예절과 관혼상제의 지혜

인간 그 자체를 공경하자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조선 시대의 가족주의적 세계관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한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각종 의례와 의식, 특히 관혼상제의 의례에 영향을 끼쳤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예절을 통해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실천하게끔 했다.

새 생명이 탄생하고 나서 치르는 백일잔치와 돌잔치 때는 아기의 의복

이나 잔치 음식 하나에도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을 통해 죽음을 끝이 아닌 회귀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후에도 ‘제사’라는 의례를 통해 조상과 소통했다. 관혼상제 중 혼례는 두 집안의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점을 중시한 의례였다. 신부가 시부모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현구고례라는 의식은 오늘날 폐백이라는 절차로 그 외형만 남았는데, 조선 시대에는 시부모와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신부의 혼수를 구경할 때 시어머니가 엿을 나눠줬다고 전해진다. 새사람이 가져온 혼수에 대해 더 이상 뒷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의미로서, 혼수 문제 등 허례허식에 집착해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곤 하는 요즘의 세태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가정을 바로세우는 중요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의복의 사치는 못사람들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도 미워하는 것이자 복을 깎아 나가게 하는 일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가정의 안정을 위한 실천 지침 중 하나로 ‘검소함’을 꼽았다는 의미다.

유학자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거론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일상생활의 예절이었다.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예절을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범주로 인식한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선비들을 위해 지은 수양 지침서인 <사소절>에서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 작은 예절을 저버려 가족들이 본받을 점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화목하고 바른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작은 예절’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19세기에 빙허각 이씨가 지은 <규합총서>에는 식사 예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펴서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여 보라. 음식을 좋은 약으로 생각하여 모양에 너무 치우쳐 먹지 말라” 같은 조언들은 지나친 탐식과 음식물 낭비를 당연시하는 현대인의 음식 문화에 대한 충고와도 같다.

이처럼 조선 시대의 가족주의는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사람에 대한 예의는 곧 가족 구성원 간의 예의와 존중으로 이어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치를 지양하고 검소할 것을 권하며, 일상생활은 물론 매끼 밥 먹을 때에도 예의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S

에디터 유수아 글 한성아 참고 문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정약용, 창비), <아버지 다산>(김성홍, 글항아리), <아버지의 편지>(정민·빅동욱 편, 김영사), <양반가문의 쓴소리>(조성기, 김영사), <성학집요/격몽요결>(이이, 고산 역, 동서문화사), <한국인의 생활사>(한미라·전경숙, 일진사), <다산 정약용의 일일수행>(박석무, 생각의나무)



1 정조 때 간행된 <오륜행실도>에는 부친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호랑이를 죽이고 3년간 무덤을 지키던 효자 최누백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효자나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중 효자 이보 광해군 때 편찬된 것으로 백성을 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규장각 소장. 3 <문자도>는 충효 또는 삼강오륜의 교훈, 그리고 길상의 의미를 지닌 글자를 통해 소망을 담은 그림이다. 그중에서도 잉어, 부채, 죽순 등은 효의 상징물로 문자도에 자주 등장한다. 작자 미상.

격조높은 삶/어우러지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칭송받으며 예절을 중시하며 살아온 선조들. 율곡 이이가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소개한 아홉 가지의 몸가짐, 이덕무가 <사소절(士小節)>을 통해 학문을 깊게 하고 지혜를 더하는 것에 대해 강조한 선조들의 예에 대한 가치관을 되새겨본다.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라

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덥다고 하지 말고, 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춥다고 하지 마라.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향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이다. 처음 공부하는 이는 분간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옥색과 연분홍빛의 치마와 저고리는 모두 금단제.

손의 모양을 공손하게

(왼쪽)수용공(手容恭).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손을 단아하게 맞잡고 있어야 하며, 아무 물건이나 만지작거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했다. 손뿐만 아니라 발걸음도 무겁게 하고, 눈의 시선은 흘기거나 결눈질하지 말며,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거만하게 헛기침을 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서 있는 자태에도 덕이 있음을 강조했다. 고운 빛깔의 삼베 한복은 모두 차이, 옥가락지, 은가락지 모두 서울무형문화재 옥장 엄익평 작품으로 가원공방.



식사에 절에 격을 올린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도 예의를 다하고자 했던 선조들. 밥상머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한숨을 크게 쉬는 것은 물론, 쌀 한 톨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수저가 상 끝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돈하는 습관을 통해 가족 간의 예의와 존중을 중요시했다.

유기그릇과 수저는 중요무형문화재 이봉주 작품으로 금단제 소반은 차이.





재물을 취함에도 예의가 있다

견득사의(見得思義). 재물을 얻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리(義理)에 따라 분별해서 마땅한 경우에만 취해야 한다. 또한 사물을 볼 때는 가려져 어두운 곳이 없도록 편견이나 욕심에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경솔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는 재물을 얻는 것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자개 장식의 보석함(압)과 혼수함은 모두 니은크라프트.



유방 여인의 예의범절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부인이 단정하고 정결함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얼굴에 화장을 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는 사람은 요망한 여인이요,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묻어나는 여인은 게으르다”고 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미를, 그렇다고 자신을 가꾸는 것에 무심함보다는 단정함과 정결함을 중요시한 대목이다.

경대와 손거울은 나은크라프트, 옥과 산호 노리개, 옥비녀와 쌍가락지, 화장함 모두 서울무형문화재 옥장 엄익평, 기원공방.

공부를 통해 심신을 수련한다

학문에 정진하나 이것이 실생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상시에 행동에 예의가 있고, 자기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겉과 속이 한결같아 혼자 있어도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행동이 같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라고 여겼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희 도움 주신 곳 금단체(02-517-7243), 가원공방(02-814-0250), 차이(02-333-6692), 나은크라프트(02-779-2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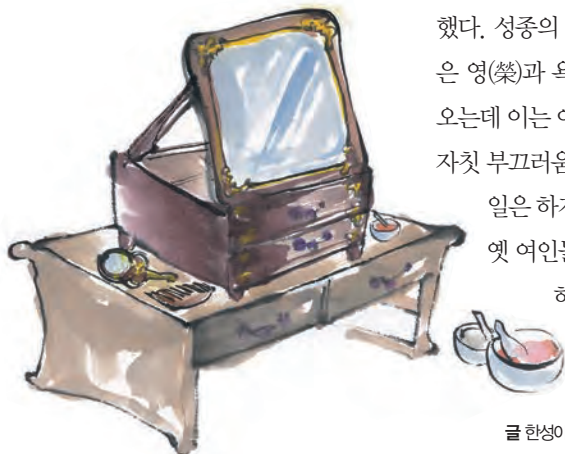


내면의 덕성과 올곧은 예절로 아름다움을 가꾼 옛 여인들

“살갓이 부드럽고 윤택하며, 어깨는 둥글고 등은 두툼하며, 목소리는 부드럽고 기가 충만하며 (중략) 평소 사람과 다투지 않으며, 고난을 겪는 중에도 원망하는 말이 없으며, 음식을 절제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거나 또 기뻐하지도 않는 덕.”

이 대목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영조의 내의였던 유중림이 <증보산림경제>라는 저서에서 언급한 '다산할 여성의 상'에 대한 내용이다. 다산을 풍요와 복의 제일 조건으로 꼽았던 시대였던 만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오늘날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산할 여성의 상이라는 것도 꼭 의학적인 근거에서 나왔다고보다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덕성'을 갖춘 여성을 이상적으로 보았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부드럽고 윤택한 살갓'은 건강한 여성을 의미했으며 '둥근 어깨' 역시 너무 깡마른 체형보다는 적절한 건강미를 갖춘 여성을 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툼지 않고, 원망의 말이 없는' 여성이란 품위와 예의범절이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배어 있어 늘 성숙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처럼 옛 여인들의 아름다움이란 내면과 외면의 미를 따로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여성은 덕성과 예의를 갖춘 여성이자 마음과 몸이 두루 건강한 여성을 뜻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여인들이 가장 중시한 것은 청결하고 고운 피부였는데, 피부란 곧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옛 여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균형 잡힌 건강미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 여인들은 진한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에 은은한 향을 풍기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 여겼고, 조선 시대 여인들도 희고 깨끗한 살결과 앵두 같은 입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미의 조건으로 여겼다. 깨끗한 피부와 붉은 입술, 머리카락의 윤기 모두 건강미를 의미한다. 조선 시대 여인들이 참빗을 애용했던 것도 알고 보면 평상시 촘촘한 빗살로 두피를 마사지하여 머릿결을 속부터 건강히 가꾸고자 함이었다.

외적으로 이와 같은 건강미를 추구했다면 내적으로는 예의범절을 갖추어 늘 언행을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가 여성들의 예의와 행실에 대한 지침을 내리기 위해 집필한 <내훈>에는 “말은 영(榮)과 옥(辱), 친(親)과 소(疎)의 관계가 좌우되는, 문의 돌쩌귀같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인용문이 나오는데 이는 여성의 예의범절 중 특히 말조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어진 여자가 입 삼가는 뜻은 자칫 부끄러움과 험뜯음을 부를까 저어하는 까닭”이라든가, “생각해보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며, 장난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지저분한 일에 얽히지 않으며, 혐의를 받을 일에 끼이지 아니한다”와 같은 대목에서 옛 여인들이 언행의 절제를 위해 자기 수양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말을 가려서 하여 모진 말을 하지 않으며, 적절한 때가 된 후에야 말하여 남에게 싫은 느낌을 주지 않음이 곧 아낙네의 말씨”와 같은 대목은, 말로 인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며 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옛사람들의 지혜를 돌아보게끔 해준다. S



글 한성이 참고 문헌 <내훈>(소혜왕후, 신원문화사), <한국인의 생활사>(한미라·전경숙, 일진사)

擘

雪花秀

열이 만든 칙칙함까지 빈틈없이 밝히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멜라닌 케어에만 집중하는 미백은 반쪽짜리 미백입니다.
설화수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멜라닌 케어는 물론, 적외선 때문에 생긴
붉은 기, 노란 기까지 맑게 하는 근본부터 다른 미백을 완성했습니다.
빛과 열에 의한 칙칙함을 동시에 밝혀 눈에 띄게 화사해지는 피부톤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자정미백에센스

Sulwhasoo



피부온난화 다큐멘타리를 통해 화이트닝의 진실을 확인해보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kr · www.facebook.com/sulwhasookorea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종려나무 숲 속에 펼쳐진 은하수 사막

튀니지 남부 네프타(Nefta)에 위치한 다르 하이(Dar HI) 호텔은 뛰어난 건축물의 스토리, 여행의 스토리 그 자체를 보여준다. 사막의 관문에서 누리는 유목민의 삶 그리고 색다른 공간으로 떠나는 여행.



네프타의 종려나무 숲과 야자나무 너머의 다
르 하이 호텔 전경.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사
막의 도시에 있는 고대의 성채를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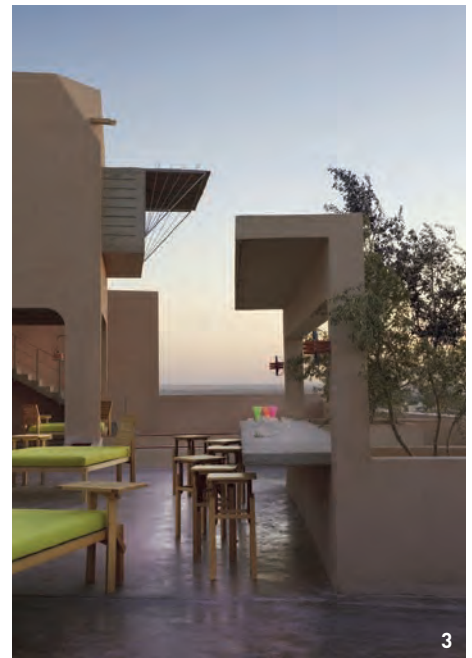
1,2 붉은 카펫처럼 디자인된 다르 하이의 입구. 종려나무 목재 문을 지나면 신발을 벗기 위한 벤치와 콘크리트로 지은 선명한 색의 거실이 나온다. 색채의 마술사 마탈리 크라세가 표현한 사막의 이국적인 정서. 3 테라스의 휴식용 침대들과 색감이 넘치는 오픈 바.



2

평온한 하늘 아래, 사막 위 색다른 경험은 토저-네프타(Tozeur-Nefta) 공항과 종려나무 숲을 잇는 긴 직선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리는 23킬로미터. 신기루처럼 펼쳐진 쇼트엘제리드(Chott el-Jerid)의 광대한 염분성 지대와 거대한 사막 사이에 대추야자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난 오아시스. 바로 이곳에서 다르 하이(DAR HI) 호텔이 탄생했다.

다르 하이는 오랜 세월 사업 파트너로 호텔 업계에 몸담아온 파트릭 엘루야기와 필립 샤플레가 2000년대 초반 선보인 '하이 라이프' 프로젝트의 최근작이다. 디자인은 필립 스타크의 뒤를 잇는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는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가 참여했다. 새로운 하이 호텔을 구상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마탈리 크라세는 튀니지의 장인들과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건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네프타(Nefta)의 아름다우면서도 자연적인 공간이 지닌 잠재력과 더불어 그 제약점들을 고려한 것은 그녀에겐 대담한 도전이었다. 그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들은 다양한 리듬, 자연이 가진 본질로의 회귀, 주위 환경과 통합된 건축물에서 우러나오는 은둔의 시간이었다. 마탈리 크라세는 도시 한가운데서, 종려나무 숲에 둘러싸인 곳에서, 숙박객들이 오아시스의 숨결을 만끽하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외부로 노출된 장소의 내부와 외부의 리듬을 상상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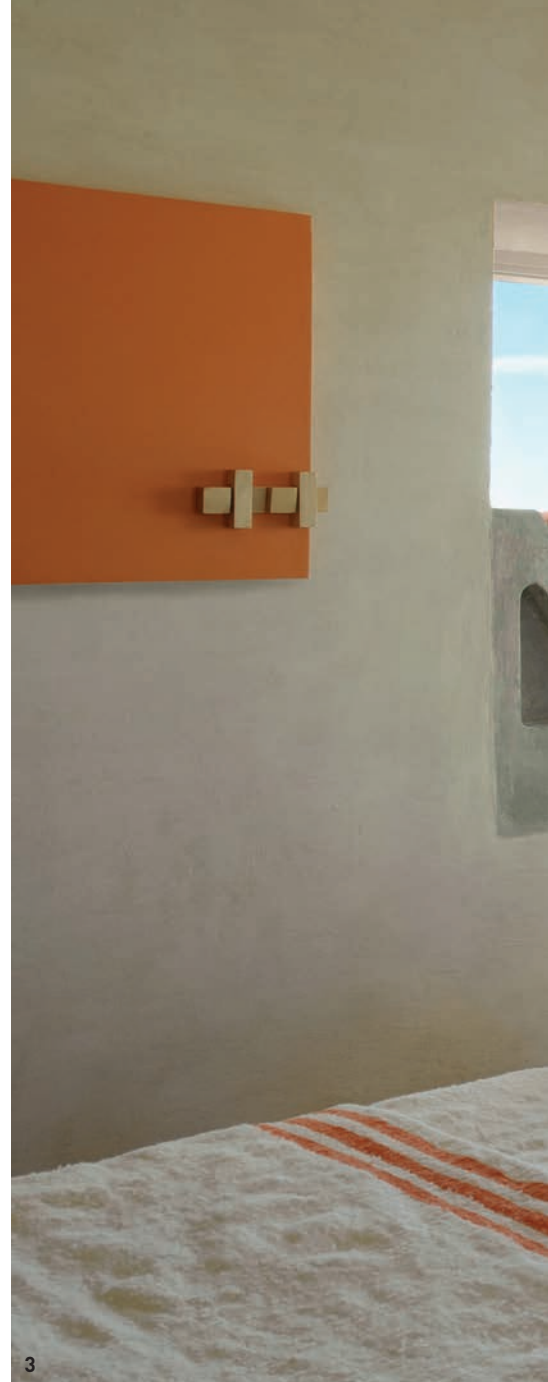
1,2 호텔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감각적인 색채의 구성. 3 안에 있으나 동시에 밖에 있는 듯한 창과 각각의 방은 풍경과 대화를 나눈다. 낙타 털 침대 커버, 회색의 대리석 의자는 몇몇의 제한된 색과 어우러져 현대적이고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4 사막의 빛은 호텔의 건축물, 수영장의 천연 온수와 유희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5 콘크리트 의자와 마탈리 크라세가 디자인한 나불(Nabeul) 색채 도자기의 조합은 터키식 목욕탕 함안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마탈리 크라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르 하이 호텔의 주변 환경은 '외부의 내향성'이 특징이어서 겉모습으로는 그 실체를 거의 알 수 없다. 동시에 '내부의 외향성' 또한 특징. 이를 위해, 다르 하이 호텔의 디자이너와 스태프는 원자재와 라이프스타일, 튀니지의 전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 파트너가 된 튀니지 기업들을 이끌면서 함께 작업했다.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했기에 작업 기간은 오래 걸렸다. 다르 하이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마탈리 크라세는 '인간에 가장 가깝게' 작업하고 싶었다.

바람에 습기를 말리고 있는 카펫이 상징처럼 둘러져 있는 호텔의 입구를 들어서면 9개 건물 하나가 마을을 이룬다. 하늘로 향한 필로티 위에 떠 있는 작은 건물들은 모래언덕 형태의 스위트룸과 돌로 만들어진 룸으로 이루어졌다. 색채가 넘치는 건물들은 개인의 리듬에 맞춘 특권적인 공간인 주거 건축물의 골조를 이룬다. 다양한 층과 플랫폼, 계단, 천장에 매달린 촛대는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고풍스러운 공간에 솟아 있는 침탑들로 둘러싸인 풍경으로 이어진다. 수영장에는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장밋빛 강당, 휴식을 위한 커다란 야외 침대들, 연회 테이블, 네프타의 전통요리를 만드는 푸른색의 바이오 오픈 키친, 콘크리트로 지어진 터키식 목욕탕 함안, 나불(Nabeul) 도자기... 이 공간들은 자극적이면서도 태평스럽고, 내밀하면서도 나른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르 하이는 종려나무 연구소가 있는 네프타에 있는 호텔답게 테라스, 문, 천장, 조명 기구, 기구에 종려나무를 다양하게 사용했다. 이것은 마탈리 크라세가 고려한 주변과의 어우러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선조의 방식들에 대한 존중과 생태학적인 의식에 대한 숙고, 네프타에서는 아름다움과 자연, 빛이 사막과 만난다. 지금도 석양빛이 황홀한 거대한 모래언덕 속 다르 하이는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한 장소로 수많은 이에게 영감을 선물하고 있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세실 바이렐리(Cécile Vaïarelli) 사진 베르나르 튀옹(Bernard Touillon)







세도호 집속력관
DO HO SUH
HOME
WITHIN
HOME

투명한 천으로 한 땀 한 땀 지은 공간의 족적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6월 초까지 열리는 서도호 개인전 <집 속의 집>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탄성을 지르게 하는 전시다. 2003년 이후 처음 열리는 한국에서의 개인전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서도호의 대표작들을 접할 수 있다. 더불어 특별 강연회를 통해 작품에 관해 정성 어린 도움말을 준 소탈하고도 진지한 모습의 그를 만났다.





1 집 속의 집 - 1/11 - 프로토타입, 2009. 2 별뿔별 - 1/5, 2008~2011. 서도호가 살았던 미국의 낯선 아파트에 한옥이 날아와 박혔지만 낙하산이 완충 작용을 해주었다. 그러다 마침내 집 속에 집이 안착한 형상을 이루었다.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충돌했지만 서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어냈다. 서도호에게 집이란 그 공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모든 곳이 내 집이면서 그 어느 곳도 내 집이 아니다”

하늘하늘한 천을 사용해 ‘한 땀 한 땀’ 지은 서도호의 작품들은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동양화의 거장 서세옥 화백의 아들인 데다 서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유학을 간 수재라는 점은 그에게 미술계의 ‘엄친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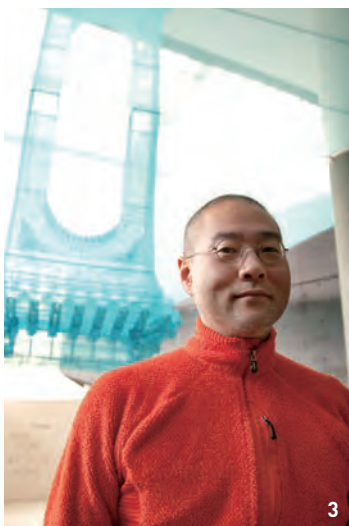
마치 푸른 수면 아래 별세계로 잠수해 들어가는 듯, 전시장 입구 경사로의 천장에서 위아래로 일렁이는 한옥 문〈투영〉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장 안에선 한복의 천인 반투명의 옥색 은조사로 지은 한옥〈서울집/서울집〉이 공중에서 시선을 끌고, 서도호가 살았던 뉴욕과 베를린의 실제 크기 집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다. 옥색 한옥은 작가의 현존하는 성북동 집으로, 부친 서세옥 화백이 창덕궁 연경당을 본떠 1970년대에 지은 전통 한옥이다. 연경당은 순조가 민간의 삶을 체험해보고자 사대부 가옥을 흉내 내어 궁 안에 지은 집인데 서세옥 화백이 한국 선비의 삶을 추구해 지었다고 한다.

작가가 일일이 치수를 재어 재단한 뉴욕 아파트는 복도와 방 안 디테일, 심지어 변기나 문고리까지 정교하게 재현되었다. 유학 갔을 때 낯선 서양식 공간이 주는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 집 안의 모든 것을 줄자로 잴 데서 출발했는데, 정교함에 집착하려던 게 아니라 방 안 모든 것의 ‘표면’을 따라간 결과라고 한다. 살던 당시의 시공간을 포착한 ‘표본’인 것이다. 한쪽 벽면에 13미터 높이로 세워진 4층짜리 뉴욕 아파트 전면은 2010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된 ‘청사진’으로 동생인 서울호 건축가와의 합작품이다.

맞춤옷 ‘깃뿔’ 집들을 ‘지은’ 작품들에 이어 위층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작가가 살았던 뉴잉글랜드 집의 건물과 이웃집 내부를 5분의 1 크기로 재현한 미니어처에 한옥이 날아와 박힌 ‘별뿔별-1/5’, 그중 서도호의 방에 걸린 부친의 한국화 작품이 눈길을 끌고, 반으로 가른 것을 다시 붙이면 아귀가 딱 맞는다는 정교함에 놀라게 된다. 미국 집에 한옥이 충돌했지만 한옥에 낙하산이 연결되어 그것이 파괴적인 충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연착륙’이었음을 암시하며, 마침내 한옥을 품은 서양 집이 된다. 뉴욕과 서울의 중간 지점인 태평양에 집을 짓는 ‘완벽한 집 : 다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그의 작품 세계는 지금도 진화 중이다. 리움 전시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 렘 쿨하스의 건축물, 그 속에 들어선 서도호의 ‘집’들은 그의 삶의 기억이자 “모든 것을 포함한 족적”이다.



1 자신이 살았던 집 안의 스위치나 문고리까지 일일이 치수를 재어 실물과 똑같이 바느질했다. 2 원래 집이란 한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작가의 집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을 지녔다. 3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유목민적'이라는 틀로 해석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한국과 미국, 독일과 영국을 중립무진하며 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안에 유목민과 같은 속성이 내재해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뉴욕아파트너머로 비쳐 보이는 옥색 한옥의 모습”

4월의 첫 토요일 오후, 리움의 대강당은 서도호 작가를 만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전 신청한 150명 인원은 일찌감치 마감되었고 대강당 좌석이 모자라 통로와 바닥까지 진을 치고서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강연에 앞서 미술사학자 우정아 포스텍 교수가 서도호의 작품 세계를 명료하고도 핵심적으로 짚어주었다. “임금이 사대부의 삶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궁 안에 지어 부엌도 사당도 없는 연경당, 그 연경당을 1970년대에 본떠 지은 성북동 한옥, 그 한옥을 천으로 지은 서도호의 작품”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는 점에서 시뮬라크룸(Simulacrum: 원본 없는 복제품)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한옥에 살아본 적 없다 할지라도 한국인이란 서도호의 작품을 보며 안온한 고향 집 같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정아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작가 강연에서 서도호는 자신이 왜 이런 작품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가는 “내 작품 세계의 씨앗은 유학 가기 전 한국에서 이미 뿌려졌다”고 했다. 그가 대학원 졸업 작품으로 제출한 작품은 단순한 동양화가 아니라 병풍 형태의 설치 작품이었다. 그는 족자나 병풍의 ‘이동성’에 대해 고민했고, 자신의 작업실의 공기를 전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풍선에 바람을 넣어 옮긴 설치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서도호 작품을 설명할 때 나오는 ‘전치(Displacement)’의 개념이 이미 그때 싹텄던 것이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로 유학을 간 그는 우연히 수강하게 된 인체 조각 수업에서 작가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옷의 형태’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보라는 과제에서 그가 만든 작품은 3,000개의 군대 인식표를 사용해 갑옷 형태를 만든 그 유명한 ‘메탈 재킷’이다. 당시 LA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들이 자기 가게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미국의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에 충격을 받은 그는 ‘한국 남자의 정체성을 다루는 작업’을 고민하다 ‘군대를 떠올렸다. “개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집단, 군인의 몸이 사라져 안은 텅 비게 된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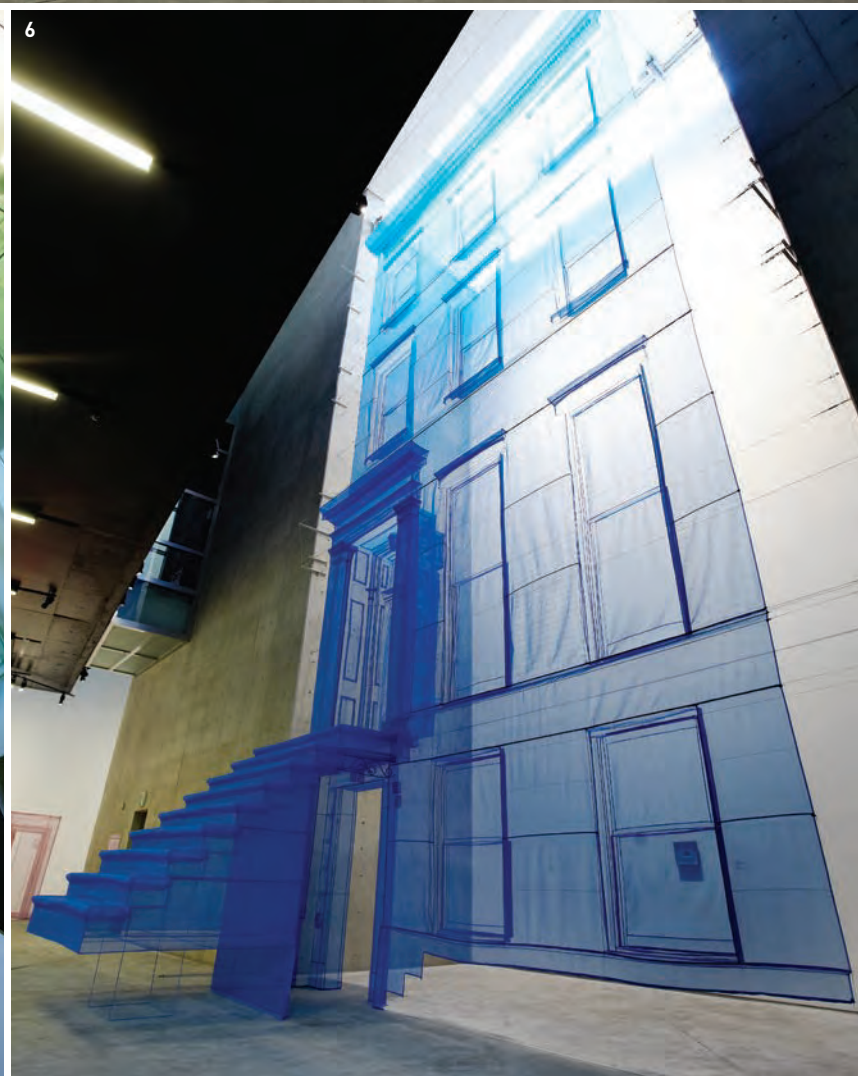
이때부터 그는 “옷이란 개인의 몸을 담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개념”에 천착했다. “개인의 정체성을 정하는 공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과 집단은 어디에서 나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특히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의 문화 차이를 경험하며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통과 공간” 이를테면 복도, 계단, 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학교 복도에 붉은 반투명 천을 매단 작품을 실험하기도 했다. 1994년에는 작업실 내부를 천으로 뒤집어씌우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천 작업의 시초였다고. “공간을 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간에 옷을 입힌 개념입니다.” 그러던 중 LA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문화원에 창덕궁 연경당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옥 작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하여 반투명한 천으로 바느질한 성북동 한옥이 문화원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천장에 설치되었다.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작품 하나만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작품에서 비쳐 보이는 다른 작품을 관찰해보세요. 뉴욕의 아파트를 통해 서울의 한옥이 보인다는 건 제게 언캐니한(Uncanny: 낯설고 기이한)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다섯 군데의 집이 한데 모인 게 처음이라 굉장히 의미 있고 흥분되는 전시입니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한성아 사진 임태준



4 북쪽 벽, 2005 : 기와에 새겨진 무늬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실렸다. 5 서울 집/서울 집, 2012 : 창덕궁 연경당을 본떠 지은 작가의 집인 성북동 한옥 본채를 옥색 천으로 재현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든 신작으로, 이 작품이 다른 도시의 전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서울 집/서울 집/00 집'과 같이 그 도시의 이름이 덧붙여진다. 6 청사 진리움 버전, 2010~2012 : 13미터 높이의 실물 크기로 재현한 것으로, 건축가인 동생 서울호와의 합작품.





네 개의 손 그림과 만난 설화수

우리의 옛 그림은 사진을 찍어내듯 실물을 묘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작품의 틀 속에 담긴 작가의 의중을 읽어내는 것이 그림 감상의 핵심이다. 설화수의 철학과 닮은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손 그림을 통해 표현된 설화수의 미학을 읽어보는 것은 어떠한가.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책가도속, 윤조에센스-강은명

전통 민화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물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동백 문양으로 장식된 윤조에센스가 화병처럼 놓여 있는 가운데, 부귀의 상징인 모란과 꽃살 문양이 설화수의 품격을 대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화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강은명 작가의 손 그림은 규방 여인의 방 한가운데 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전통적인 민화와 현대적인 설화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염색한 한지에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흑백의 모던한 조화, 정양-이규복

설화수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빛깔일까. 이규복 작가의 캘리그래피를 통해 완성된 설화수는 흰빛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하나도 같을 수 없는 백색의 미감은 그래서 설화수의 그것과 닮아 있다. 사군자 중 하나인 매화 가지 너머 하얀 여백과 그것을 채우는 검은 정양 크림의 위풍당당한 자태는 흑과 백의 조화가 이루어내는 여백의 미가 얼마나 화면을 꽉 채울 수 있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正氣
正氣
正氣
正氣
正氣
正氣
正氣
正氣
正氣
正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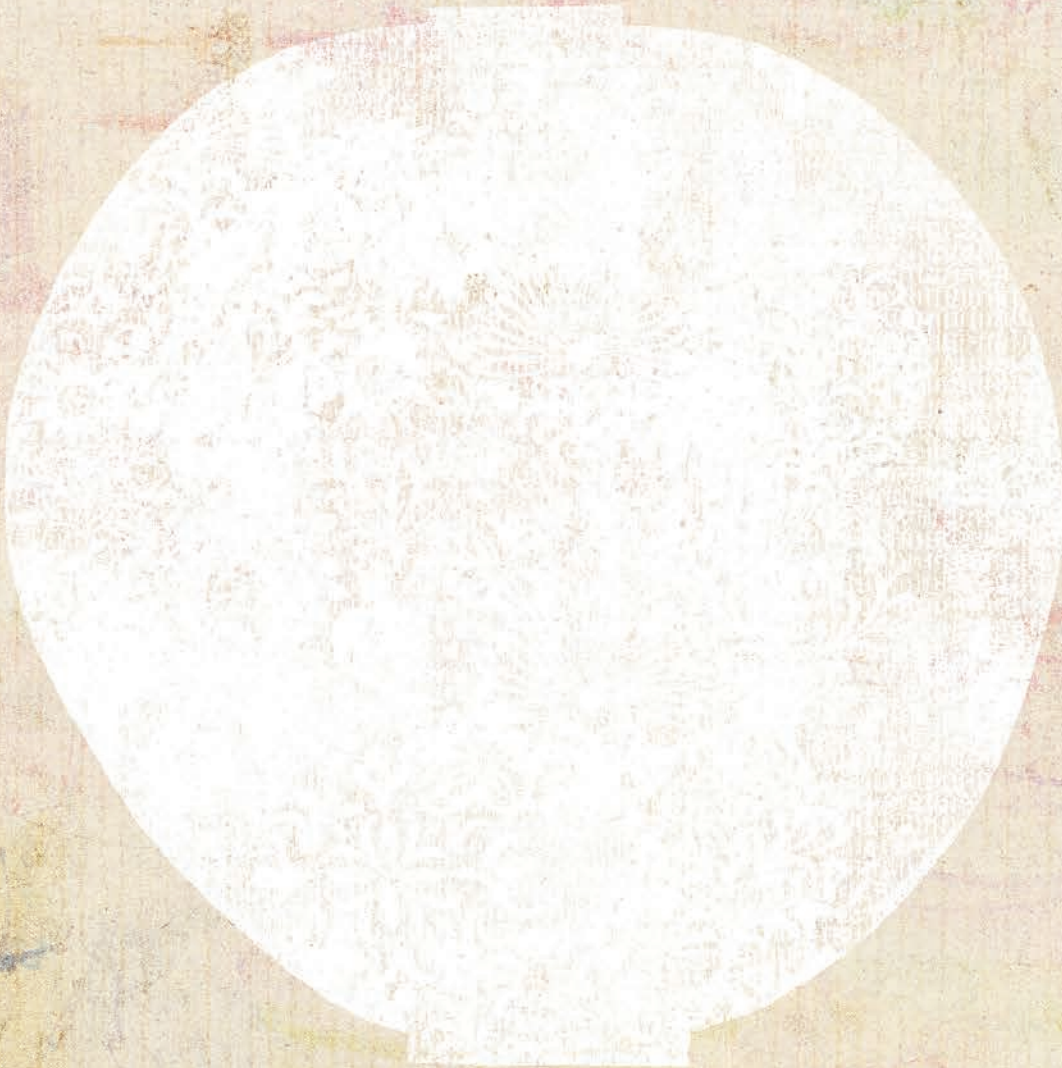


能
香
以
白
美



선과 면으로 표현한 아름다움, 설화수-이강훈

이강훈 작가에게 백자 달항아리는 각별하다. 어찌 보면 투박하다가도, 어찌 보면 단아하다. 또 어떨 때는 현대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설화수의 모든 용기가 도자를 모티프로 한 것처럼 선과 면으로 채워진 달항아리를 보면서 설화수를 연상시킨다. 설화수와 달항아리의 이미지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가 그린 그림은 다소 어지러운 바탕을 흰색의 선과 면이 채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완성성은 설화수와 달항아리다.





뉴욕커가 사랑한, 자정 - 오연경

뉴욕 버그도프 굿맨에 입점한 이래, 설화수의 위상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설화수의 전통적인 여인상만을 상상했다면, 뉴욕 버그도프 굿맨의 매장에서 설화수 자정 라인을 쇼핑하는 뉴욕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봄 직하다. 한 올도 흐트러짐을 허락하지 않는 정갈한 헤어스타일과 화이트 재킷을 입은 뉴욕커를 위한 자정 라인은 피부 하나만으로 당당하고 싶은 여인의 소망은 국적을 따지지 않음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오연경 작가가 그린 설화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설화수와 함께한다'는 컨셉트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액자에 담고픈 여인의 심리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했다.





설화문화전 장인을 만나다



나대재 기르고 삼고 끌어 퍼낸 전통 한지(韓紙)

한지장 장용훈

조선 왕실의 의궤를 본 적이 있는가? 위대한 기록문화유산이기에 앞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다. 치밀한 기록과 묘사를 남긴 선조들의 세심함도 감탄을 자아내지만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한지만의 지질(紙質)은 단연코 압권이다. 한지는 비단 왕조실록이나 의궤에만 쓰인 건 아니었다. 한옥 창틀의 창호지는 바람을 내보내고 들여보내며 숨을 쉬었다. 어디 그뿐인가. 한지 없는 제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지는 일상의 대소사에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었다.

“서양의 종이는 껍질은 벗겨서 버리고 목질을 쓰는 것이고, 한지는 목질은 버리고 껍질의 속을 재료로 한다는 점이 다르죠. 또 종이의 품질로 보면 한지는 섬유가 길어서 산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에 양지는 섬유의 길이가 짧아서 쉽게 부서지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르죠.”

인류에게 종이 없었다면 지금의 문명사는 결코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종이는 인류의 오늘이 있게 한 귀중한 발명품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종이를 생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다면 이 탁월한 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였던 것일까. 그 해답을 들려줄 이가 아직 우리 곁에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장용훈. 1937년에 태어나 열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장장 63년을 한지만 떠온 그는 오늘도 경기도 가평 한적한 마을에서 옛 방식을 고수하며 찬물에서 한지를 떠내고 인 손을 ‘손물(따뜻한 물)’에 담가 녹이며 산다. 그가 숙명처럼 종잇장을 쥐고 살게 된 건 집안 내력 때문이었다. 격동기였던 구한말, 관청 소관이었던 종이 생산이 농한기 손을 놀리던 민가로 넘어왔다. 그 무렵 장용훈 한지장의 조부 장경순이 한지와 첫 인연을 맺었고, 그 대물림은 증손인 장성우에게까지 이어져 4대째가 되었다.

한지장 장용훈은 어린 시절 종이 가 마냥 좋았다. 아버지(장세권) 몰래 종이를 떠놓으면 “네가 했냐? 하지 마라. 평생 고생한다”며 말리셨다고. 하지만 고집 센 아들은 부친의 말을 거역했고, 아버지의 예언처럼 고령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산다. 고생이긴 하지만 빛나는 고생이다. ‘견오백지천년’이라고 했다. 비단은 오백 년 가고, 종이는 천 년 간다는 얘기다. 한지는 ‘물, 닦, 물’ 이 세 가지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선생은 맑은 물을 따라 전주와 서울, 경기도 마석, 청평을 거쳐 지금의 가평까지 전국을 떠돌아야 했다. 그렇게 장돌뱅이 아닌 장돌뱅이로 살며 고생을 해서일까? 풍채가 좋았던 선생은 청력을 거의 잃었고, 세상의 소리가 지워진 만큼 기억도 가물 거리는 모양이다. 묘한 건 그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이 뜨는 솜씨만큼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으랴. 그의 지워진 기억을 전수자이자 아들인 장성우 씨로부터 건네 들어야 하니 말이다.

그가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참닥이라고 해서 좋은 닻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껍질의 속대를 삶아 부드럽게 만듭니다. 끓는 물에 잿물을 넣어 끓는점을 높여주는데, 잿물은 일종의 표백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다 삶아진 것을 백닥이라고 부르고 이걸 맑은 물에 여러 번 세척을 한 뒤에 잡티를 골라줍니다. 그런 다음 백닥을 두들겨 놓고, 종이 뜰 물에 황축규를 넣고 잘 풀어줍니다. 이 황축규란 게 닻나무의 섬유를 잘 엉키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백닥을 곱게 풀수록 좋은 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잔일을 거쳐야 비로소 종이를 뜰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 닻나무를 뜰 물에 발로 좌우를 한 번, 상하로 한 번 물질을 해서 대나무 틀에 종이를 떠낸다. 이때가 장인의 솜씨를 좌우하는 단계라고 봐도 좋다. 오랜 경험과 성실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이 종이를 양지바른 흙벽에 붙여 자연 건조시키면 비로소 한 장의 한지가 태어나, 천 년의 수명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공예품치고 고단한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난산 끝에 세상에 나온 우리 전통한지가 서양의 종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면 서양의 종이는 껍질은 벗겨서 버리고 목질을 쓰는 것이고, 한지는 목질은 버리고 껍질의 속을 재료로 한다는 점이 다르죠. 또 종이의 품질로 보면 한지는 섬유가 길어서 산화







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에 양지는 섬유의 길이가 짧아서 쉽게 부서지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르죠.”

그런 '다름' 때문에 서양의 종이는 접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지만 한지는 접었던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이다. 종이가 좋아 고생길을 자청한 선생과 달리 아들 성우 씨는 군 제대 후 잠시 거들자고 했던 일이 벌써 22년째란다.

“어린 시절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깬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의 새벽일 소리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물론 중고교 시절엔 장작을 때고 닳나무를 삶는 뒷일을 했죠. 집안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휴일이면 친구들과 놀러 나갈 궁리로 피를 부리곤 했어요.”

하지만 집안 내력이 어디 가겠는가. 연로하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그는 고됨은 이미 그의 몫이 된 지 오래다. 일감이 많았을 때는 뒷일(허드렛일)을 봐주는 일꾼들이 있었지만 한지의 쓰임새가 줄어들어 지금, 거의 모든 일은 그의 두 손에 신세를 지고 있다.

그에게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인 '물, 닳, 물'에 대해 더 물었다.

“앞의 물은 닳나무를 푸는 물이고, 무엇보다 주재료인 닳나무가 좋아야죠. 보통 닳나무는 밭에 경계목으로 심는데, 농지가 줄어들다 보니 요즘은 좋은 닳나무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저희가 다기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물은 잣물을 말합니다. 잣물은 알칼리수로 고춧대나 메밀대를 태워서 내린 물이죠. 옛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런 건 딱딱해서 짐승들의 먹잇감도 못 되는데 정말 쓸모없는 걸로 잣물을 만들어 썼으니, 세상에 버릴 것 없다는 말을 실천했던 겁니다.”

장용훈 선생 일가의 '장지방'처럼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곳은 서너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거의 잣물 대신 양잿물을 쓰고 수작업 대신 기계의 힘을 빌려 한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오로지 수작업으로 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땀에 젖은 한지'가 점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설화문화전〉에 출품한 작품을 음양지라고 합니다. 창호지라고 했던 걸 창호가 사라지는 터라 두 장을 겹쳐 한 장을 만든다는 뜻에서 90년대 초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우 씨는 전통의 방식은 고수하되, 새로운 시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물이나 먹물을 들인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마치 삼베처럼 생긴 미상지로 젊은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 노력과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한지의 우수한 흡습성과 통기성 등이 널리 인식되면서 한지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물론 예전만큼 일감이 많은 건 아니다.

다만 수입 펄프로 만들거나 화학 염료를 섞어 만든 화선지 같은 저질 종이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예술가들이 스스로 한지를 찾기 시작한 것. 순지라고 부르는 재래 한지엔 닳나무와 풀 역할을 하는 황촉규 외에는 인공적인 그 무엇도 첨가되지 않는다. 작업이 편리하고 때깔을 좋게 하는 화학 재료와 타협하지 않아야만 '천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섬유 사이의 기공으로 공기를 소통시키고 빛을 투과하므로 창호지로 쓰면 집 안의 냄새를 제거하고 습도까지 유지하는 탁월한 기능을 지닌 한지. 옛 여인들은 시집갈 때 한지로 요강을 만들어 가마 안에서 요긴하게 썼단다. 아, 천하에 귀한 한지를 왜 자꾸 외면하고 있는가.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전택수



작가 이현정 **담다**

도예가이자 설치미술가, 가구 디자이너인
예술가 이현정의 도자와 삶, 그리고 그릇장.



1 다채로운 작품들이 가득한, 보물 창고 같은 그의 작업실 2 거친 느낌의 형태와 묘하게 잘 어울리는 꽃과 새가 그려진 도자 작품. 3 제주도 고목 위에 연출해놓은 달항아리. 가마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된 모습의 이 작품은 작위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을 지양하는 그의 예술 세계를 잘 보여준다.

“도자기를 빚고 조각하듯 지은 곳이에요.” 우거진 나무와 작은 천(川)을 따라 도착한 이현정 작가의 양평 작업실. 도예가이자 설치미술가, 가구 디자이너인 예술가 이현정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이곳을 그는 ‘캠프 A’라 불렀다. 음식을 담는 도자기를 만들던 손은 가구를 거쳐 사람을 담는 집을 지었다. 대중에게는 브래드 피트가 작품을 구입한 한국 작가로 유명세를 탔지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료의 물성을 과감하게 살리는 작가,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가로 알려진 이현정. 뉴욕의 R. 20세기 갤러리에서 지난 3월에 막을 올린 <한국 현대 디자인(Comtemporary Korean Design)>전 또한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단한 전시가 된 것 같아요. 도자뿐 아니라 나무와 쇠 등 소재의 변화 그리고 형태, 색, 구조에 관해서도 이전의 작품과 다른 변화를 꾀했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좋은 작품, 좋은 그릇을 보는 기준은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영혼과 인간애라는 그.

“좋은 그릇엔 영혼이 있어요. 좋은 디자인의 기준은 새로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엔 인간애,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이런 인간애를 표현하려다 보니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자연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 최소한의 인공을 용인하는 그의 작품 세계는 그가 사용하는 생활 그릇과도 닮아 있다. 디저트 접시에서부터 찻사발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릇장에 놓인 그릇들은 바다를 닮은 푸른 접시, 날것 그대로의 감홍을 가진 투박한 사발 등 기존의 식탁에서 볼 수 없었던 분위기와 정서를 뿜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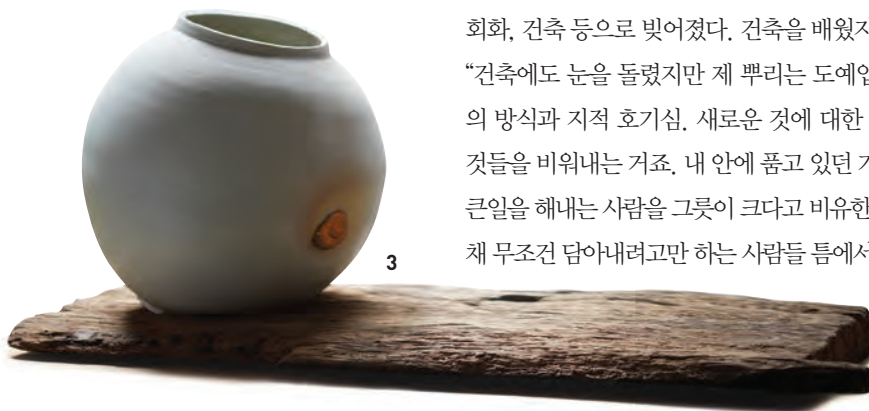
“그릇을 만들며 배우게 돼요. 어디론가 떠났다가 너무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들 때 차분히 그릇을 만듭니다. 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도자의 매력은 형태에서 갖는 아름다움이라기보다 도자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요.” 소위 잘생겼다고 칭하는 달항아리의 가치는 자연스러움이 보일 때다. 도공이 최선을 다해 빚은 도자는 도공의 손을 떠나 오롯이 시간과 불에 의해 완성된다. 거기서 오는 자연스러움은 어떤 위대한 도공도 따라 할 수 없는 기술이다.

최근 그는 건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기존에 볼 수 없던 공간에 대한 개념적인 일련의 작업은 도자, 목제, 회화, 건축 등으로 빚어졌다. 건축을 배웠지만 결국엔 도자에 관한 새로운 방식들을 발견해냈다.

“건축에도 눈을 돌렸지만 제 뿌리는 도예입니다. 여행처럼 건축에도 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것이죠. 작품의 방식과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제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거죠. 내 안에 품고 있던 기능성들을 새로운 곳에서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큰일을 해내는 사람을 그릇이 크다고 비유한다. 이현정의 그릇은 분명 크다. 그것이 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무조건 담아내려고만 하는 사람들 틈에서 안에 담긴 것을 과감히 비워내려는 그에겐 마음의 소리, 인생이 부르는 여정의 안내를 경청하려는 겸허함이 있기 때문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박재형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학문과 휴식을 한자리에서 한 몸으로 대했던 그들

글 읽는 학동들의 낭랑한 소리가 낮은 담을 넘어 앞산에 부딪쳐 매아리가 됐으리라. 그 울림은 언 땅을 녹여 봄을 재촉하기도 하고, 철새의 발목을 잡기도 했을 것이다. 서애 유성룡의 위패를 모신 병산서원은 조선 서원 건축의 전형이자 학문의 땅 안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기억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



1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려 시대에 그 시원을 두고 있는 병산서원 새벽 물안개라도 피어오르면 절로 시인이 된다.
 2 사람은 그만큼 살 수도 없겠지만, 산다 한들 그 세월이 저 리어름다울 수 있을까. 수백 년 풍상을 맨몸으로 버틴 배롱 나무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3 사람 손이 덜 탄 만대루의 기둥이며 대를보가 마치 지금도 숨을 쉬는 듯하다.
 4 사진 속 내체의 처마가 마치 아귀를 맞춘 것처럼 보인다.
 5 흰 것은 흰 채로, 끈은 것은 또 그렇게 세워 집을 머리에 이고 사람을 이었다.

육신의 노동이 머슴의 몫이었다면, 정신노동의 무거운 짐은 선비들의 차지였다. 그러니까 조선은 노동과 학문을 각기 다른 계급이 양분했던 신분 사회였다. 글을 제대로 췌 선비에게 학문은 이상향의 지름길인 동시에 형극의 길이었다. 자리끼 그릇의 바닥이 드러날 때쯤 기침해서 달이 기울어야 책을 내려놓았던 그들이었다. 손등의 흠을 털어낼 짬이 없던 머슴들에겐 신선놀음처럼 보였겠지만 말이다.

학문을 입신양명의 수단 정도로 얽잡은 천박한 선비들과 그들의 길은 달라도 몹시 달랐다. 그들에게 학문은 봉분을 이불 삼기 전까지 갈고닦아도 감히 범접하기 힘든 미지의 세상이었다.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대와 맞닥뜨린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선 현실에 수없이 좌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학문의 무게에 짓눌린 그들의 휴식처가 강론의 장이었던 서원(書院)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남득하기 힘들지만 사실이었다. 세끼 밥보다 체면이 우선인 터라 드러내놓고 힘겨워할 수도 방탕할 수도 없었으니, 운신의 폭이 좁았으리라. 그리하여 이 융통성 없는 책상물림들은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를 앞세워 지긋지긋한 책장을 덮지 못하고 그 속에서 설 곳을 찾았다. 올곧은 학자의 현명한 처신처럼 보이지만 비틀어보면 이만한 벽창호도 없지 않은가.

그런 어쭙잖은 생각이 일시에 깨진 건 병산서원(屏山書院)을 찾았기였다.

양반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고장 안동. 비단 하회마을이 아니라도 안동은 권력과 학문이란 두 개의 뿌리가 내린 유서 깊은 곳 아닌가. 바로 그곳 안동은 서원의 땅이기도 하다. 조선 성리학의 거두 퇴계 이황을 배향한 서원의 대명사 도산서원(陶山書院)이 그곳에 우뚝하다. 하지만 그 육중한 그늘에 가려 제빛을 잃은 곳이 있다. 병산서원이 거기 있음은 확인가, 복인가.

서애가 나고 자란 하회마을에서 터벅터벅 길을 만만 지척에 그의 위패를 배향한 병산서원이 있다. 유성룡이란 이름의 무게 때문에 너무 큰 것을 바란 것이었을까. 예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다. 마주하고 서서 본 병산서원의 몸집은 왜소하기 짝이 없어, 내심 헛겜음이 지 싫었다. 마치 몰락한 가문의 선비가 출사마져 포기한 모습이 저랬거니 싶었다. 하지만 규모의 선입견에 물든 천한 후손의 눈이 번쩍 뜨인 건 낡은 문지방을 넘고서였다.

미심쩍은 눈으로 "조선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이란 상찬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던 말인가"를 되뇌던 방문객은 등을 돌렸다. 아, 만대루(晩對樓)와 병산(屏山)이 교차되는 순간 무릎이 꿇였다. 아뽀새! 이런 것이구나. 물론 만대루가 지닌 건축학적 가치를 가늠할 재간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없지만 그건 하나의 충격임이 분명했다. 눈앞에 인위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어울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있지 않은가. 그 고졸한 품격을 어찌 필설로 읊길 수 있을까. 그 어떤 장식이나 치장도 허락하지 않는 깨끗함이 불기둥처럼 솟아오른다. 단 한 줄의 사족도 없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온전히 전해지는 그 무엇에 의한 감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세월을 뛰어넘어 선생의 학식과 인품을 흠모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흠어졌던 곳이 만대루다. 다른 곳을 둘러보기 전임에도 만대루가 백미임을 눈치채게 만든다. 하지만 스스로 두드러져서가 아니다. 마치 병풍 같다 하여 이름 얻은 병산은 만대루의 아름다리 일곱 기둥을 만나 7폭 병풍으로 마침내 완성된다. 흰도래 고운 낙동강을 향해 도포 자락 편 듯 서 있는 만대루 위



3



4



5



에서 형형한 눈빛의 서애는 후학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무슨 상념에 젖었을꼬. 만대루에 서면 병산서원의 풍경이 세로로 갈라지지만, 입교당에 오르면 만대루의 지붕은 다시 그 풍경을 가로로 분할한다. 이것이 병산서원이 연출하는 수직과 수평의 조화이자 합일이지 않을까. 병산서원은 온전히 서애의 흔적이자 기념비다. 살아생전에는 국운을 근심하며 후진을 길렀고, 육신의 기력이 다해서는 위패로 남아 자신의 넋을 추모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봄가을로 어김없이 서애의 향사(제사)가 치러지는 병산서원이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은 것은 서애의 뜻에 의해서였다. 흥건적의 난을 피해 풍산을 지나던 고려 공민왕이 난리 중에도 학문에 열중인 유생들을 보고 감동해 많은 서책과 사패지(賜牌地-호패와 땅)를 주어 격려했을 만큼 학문의 기세가 드높았던 곳이 풍산의 풍악서당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시중의 번잡함 때문에 서당을 옮겨야 했고, 서애가 지금의 위치를 잡아주었던 것.

병산을 마주하고 화산을 등에 진 병산서원의 풍광은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질푸른 송림으로 절정을 이룬다. 하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안산인 병산은 너무 높고, 유속이 빠른 낙동강은 땅의 기운을 내모는 형국이라 집터로는 마땅치 않다고. 그러나 절묘하게도 제자를 가르쳐 세상으로 내보내는 서당의 입지로는 제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병산서당은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명문이 됐고, 1868년(고종 5년) 흥선대원군내린 서원 철폐령의 서슬 퍼런 칼날도 비껴간 마흔일곱 서원 중 하나가 되었으니 말이다.

병산서원은 사당인 존덕사를 머리로 시작해 서당의 중심인 입교당(현재의 교실)과 기숙사 격인 동재와 서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책의 향기를 따라 서원을 돌다가 마주한 유쾌한 공간이 있다. 요즘의 화장실인 뒷간이다. 양반의 뒷간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것이지만 눈길을 잡아끄는 건 바로 달팽이처럼 생긴 머슴들의 뒷간이다. 천장은 없다. 나선형의 담이 외부의 눈길을 막는 그런 구조다. 현대 건축물이라면 머슴들의 뒷간에 높은 점수를 매길 만하다.

서원은 바깥에서는 폐쇄적으로 보인다. 닫힌 공간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내부는 사방과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바로 이것이 서원의 건축학적 특성이자 유교가 지향하는 건축적 철학이기도 하다.

정취에 잃은 넋을 추스르자, 과연 이런 풍광 속에서 학문에 집중이 되었을까 싶다. 몽매한 후손의 생각은 그렇듯 짧지만, 학문을 업으로 삼았던 선조들은 휴식까지 학문으로 구했던 것이다. 고개를 돌리자 만대루 난간을 장식한 안상 무늬가 눈에 들어온다. 코끼리가 귀를 활짝 편 모습을 형상화한 안상 무늬는 불상 대좌의 기단부를 장식하는 전형적인 불교 양식이 아닌가. 불교의 흔적이 서원 한구석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구나.

통나무를 그대로 계단 삼은 만대루에 내려선다. 사방으로 터진 이 열린 공간에서 바람으로 책장을 넘기던 유생들은 강학과 휴식을 반복하며, 다들지 않아 더욱 튼실해 보이는 대들보처럼 조선의 동량이 되어갔을 것이다. 만대루는 두보의 시 '백제성루'에 나오는 "푸른 절벽은 오후 늦게 대할 만하니(翠屏宜晚對)"란 구절에서 그 이름을 길어왔단다.

그래서일까? 만대루 일곱 기둥이 종일 매화를 어루만지던 늦은 봄빛을 얼싸안고 흔들린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2



3

1 두 그루의 배롱나무가 건물을 호위한다. 아직 꽃도 잎도 품기 전의 나무는 나뭇이다. 하지만 나뭇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푸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나무도 사람도 한가지 이치다. 2,3 만대루 곁에서 겨우내 그리도 몸살을 앓던 매화 나무가 꽃을 피웠다. 아서라, 봄바람에 매화꽃 떨어질라.

사설(辭說)로 세상을 향해 통성을 내지르는 광대

구민(口民)이란 호를 쓰는 소리꾼이 있다. 백성의 입을 대신해 우리 가락을 하라며 선배가 지어준 호란다. 배일동, 동편제의 마지막 적자인 강도근 밑에서 수학한 그는 생김새부터 선이 굵어 천생 웅건하고 호령조 많은 동편제 소리꾼답다. 고향 인근 선암사에 천막을 치고 7년 독공으로 목을 얻은 그의 소리 인생에는 어떤 곡절이 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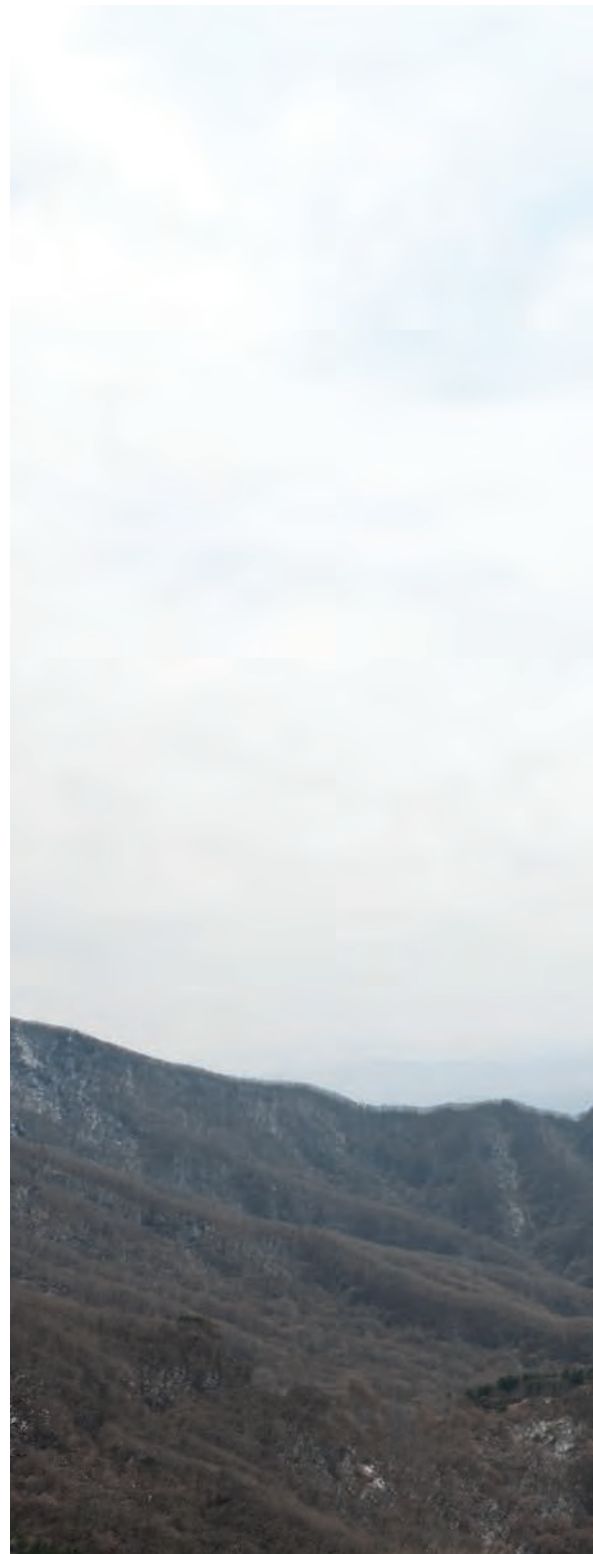
요즘은 국악에도 조기교육 바람이 불어 ‘국악 신동’들이 허다한 세상이다. 그렇게 따지면 그의 소리 입문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청년이란 말이 시뭇 어색해지는 스물여덟에 발을 들였으니 말이다.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 거친 길을 제 발로 그것도 늦은 나이에 나선 걸까.

“우리 소리만의 시김새며 절묘한 장단의 맛이야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처음엔 그저 판소리에 묻어나는 우리네 애조에 끌렸던 거죠. 가난의 절박함과 처절함이 담긴 남도 가락의 애절한 음색은 제 어린 시절의 일상이자 현실이었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순천 장바닥 난전에서 배추를 펼쳐놓고 팔았고, 아버지는 농부였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민초의 애환이 담긴 판소리 다섯 바탕은 그의 피를 끓게 했고 삶의 길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촌부(村夫)였지만 한학에 밝았던 아버지는 늘 당신의 머리맡에 두었던 낡은 국어 사전을 건네며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단어의 속성을 알고 개념이 분명해야 온전한 지식이 되고 사리가 분명해진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부전자전으로 그는 지금도 <장자>나 <시경>이니 하는 책들을 끼고 산다. 그런 푹 부러진 가르침은 소리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순천의 염금향 수하에서 소리를 배우던 그는 여느 소리꾼들이 그렇듯 스승을 따르는 순례를 시작한다. 서울로 올라와 성우향 선생의 문하를 거친 그는 강도근 선생의 소리를 듣고 동편제의 매력에 빠졌다. 그의 발치에서 흥보가와 수궁가를 배웠지만 연로한 선생이 작고하자 서울로 올라왔다. 그 무렵 그는 송만갑, 이동백 등 당시 북각판으로 나온 근대 5명창의 소리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초라함에 깨달은 바가 컸던 그는 ‘산 공부’를 결심한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분들의 소리가 투박하게 느껴지는 건 요즘의 소리가 장식음과 기교로 넘쳤기 때문이죠. 지나친 장식은 판소리의 근본인 사설을 다치게 하죠. 화려한 기교가 아닌 원형의 정신을 탐구하고 싶어 입산을 작정한 겁니다.”







득음을 위한 소리꾼의 산 공부 특이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것처럼 7년 넘는 시간을 꼬박 정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강직한 그의 성품은 성실로 빛나는 시절을 만들었다. 선암사 골짜기에 친 천막 속에서 그는 홀로 무엇을 얻고 깨달았을까.

“미처서 제 발로 들어간 산이니 외롭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한데 소리에 빠져들면 들수록 벽에 부딪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도 목이 상해 개미 소리만큼도 안 나오다가 진력을 다하면 실낱같은 소리가 나올 때의 개운함 같은 것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선암사 독공 시절, 그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릿한 경험을 했다. 목의 열기가 가라앉아 공부하기 좋은 어느 늦가를 밤이었다. 가뜩이나 고요한 산속에서 난데없이 남자의 곡소리가 계곡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닌가. 산에 오래 있으면 귀신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가 떠올라 모골이 송연해졌다. 가봤더니 스님이 울고 있더라. 사연인즉슨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속가 모친의 부음을 듣고 온종일 숨어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 공부가 끝나면 먹을 요량으로 담가두었던 그의 머루주는 그날 밤 스님의 차지가 됐다. 지리산은 그에게 그런 가르침도 주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가 지리산에서 “산은 3년은 지나야 산 맛을 보여준다”는 체험을 한 건 덤이었다. 잔설이 녹아 계곡의 속살이 보이고, 겨우내 잠잠하던 산새가 목청을 세울 때를 안 것도 그 시절 거기에서였다.

늦깎이에 독공으로 소리를 찾아 헤맨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가 갑자기 춘향가 중 한 대목인 쑥대머리의 목청을 세우더니 “보고지고, 보고지고”를 외친다.

“보세요. 사무친 그리움을 토하는 대목입니다. 이걸 어릴 적에 머리로 배운 것과 가슴에 웅이쳐

〈국악기행〉에 소개된 음원을 감상해 보세요

매호 소개되는 〈국악기행〉 컬럼의 국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설화수 홈페이지의 설화수 매거진 e북을 방문하시면 동편제 소리꾼 배일동의 선이 굵은 통성을 눈으로만 아니라, 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림 박힌 감정을 끌어내 소리에 신는 것과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코앞에서 하는 그의 짧은 소리에도 혼비백산할 지경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목을 얻은 걸까.

“제가 생각하는 통성은 단전과 통했을 때 나는 소리죠. 자, 이 복체에 중심이 있듯이 이쑤시개에도 중심이 있는 법입니다. 목구멍으로만 내는 깨목 가지고는 진짜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시김새나 음악적 기교는 타고날 수도 있고, 배워서도 됩니다. 하지만 성품이 담긴 뿌리 깊은 소리는 통성으로만 낼 수 있어요. 귀를 홀리는 가벼운 재주가 아니라 품성과 소양 그리고 깨달음이 근저에 깔린 소리라야 제맛인 거죠.”

그에게 서편제와 비교되는 동편제의 다름에 대해 물었다.

“전승된 지역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식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목포에서 소리하는 분도 동편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보다는 소리의 생김새로 나누는 게 맞을 겁니다. 서편제가 여성적이라면, 동편제는 직선적이고 남성적이라 대조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동편제는 원형에 가깝고, 서편제는 후에 많은 장식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것이 윗길이다 아니다를 따질 일은 아닙니다. 소리를 끌고 가는 길이 다르고 형식이 다른 것이죠.”

그는 채색 위주의 북종화가 서편제라면 동편제는 담담한 수묵의 남종화라고 비유했다.

예술가는 스스로를 유배시키는 고행을 자처한 사람들이다. 소리꾼 배일동 역시 그랬다. 쉬운 길을 등지고 거칠고 험한 길만 골라 발을 내디뎠다. 무슨 작심을 했기에 그랬던 것일까.

“한번은 산에서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스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러시는 겁니다. 지켜보니 처사가 참 열심히데, 그런 정진이면 불도를 닦아 부처가 되셔야지, 왜 속가의 도를 닦는 헛수고를 하시는가 하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따, 스님 뭘 그런 요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설악에서 흐른 물과 지리산에서 흐른 물이 가는 길은 달라 보여도 어차피 바다에서 만날 일 아닙니까. 무엇이 됐든 궁극에는 하나의 깨달음으로 만나는 게 세상 이치라고 봅니다.”

그는 소리에 대한 자신의 초발심인 ‘애조’를 잃지 않기 위해 늘 공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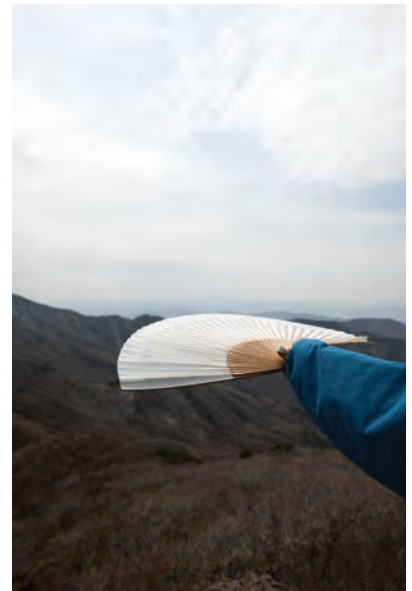
“제가 자란 곳에선 자식들 가르치기가 힘들어 농약 먹고 눈두렁에 쓰러진 아버지들이 적지 않았어요. 머리 푼 아내는 어린 자식을 옆구리에 끼고 거적에 싸인 남편을 끌어안고 통곡했죠.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아직도 그 뼈저린 장면을 잊지 못하는 그는 판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했다. 판소리는 사회적 약자인 백성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염병할 세상을 질타하던 사설로, 비판 여론을 만들던 언론의 일종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을 구할 재주는 없지만 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광대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릿광대와는 다르죠. 제가 가고 싶은 길은 언제나 광대의 길인 거죠.”

부디 그가 가는 길에 늘 꽃이 피어 있어, 그가 외롭지 않기를 빌어본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지리산 선암사 계곡, 7년 독공의 현장이다. 자신이 갈구하던 목을 얻기 위해, 거센 물소리에 묻히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이다. 어떤 기교보다 판소리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깨닫고 얻기를 고대하는 소리꾼. 그가 걸어갈 길은 또한 사람의 명칭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자연 정원으로의 초대

시절을 좇아 핀 화려하고 탐스러운 꽃들 틈으로 비치는 앙증맞은 얼굴, 수줍은 미소의 소녀를 닮은 야생화.

따스한 햇살 아래 걷는 거리마다 담장 너머 뜰 가득히 탐스러운 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만개했다. 화사한 빛깔의 꽃들 틈새로 문득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을 발견한다. 화려하진 않지만 분명한 자기만의 빛깔과 향취를 내는 야생화를 만나는 것. 가까운 거리는 걷게 만드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알고 보면 친숙한 이름의 야생화를 고운 빛깔로 그려낸 세밀와 함께 만나보자.

매화·난초·대나무와 더불어 사군자(四君子)로 일컬어온 국화는 고상하면서도 우아한 자태와 향기가 일품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국화로 술을 빚고 화전이나 차를 만들어 그 향취를 즐겼으며 창호지 문에 국화꽃 잎을 넣어 생활의 멋을 즐기기도 했다.

또한 음력 3월 3일엔 진달래전을 먹으며 즐기듯이 음력 9월 9일엔 국화절이라 하여 경향 각지에서 야생 국화를 이용한 국화전을 해 먹었다. 특히 이날엔 그 전날 국화꽃에 씌워 이슬과 향기를 머금게 한 숨으로 몸을 씻으면 장수한다는 전설이 있다. 불로장생의 영초라 불려온 국화는 지금도 한방에서 사용하는 약용식물이다. 9~10월에 국화꽃이 피면 꽃을 따서 그늘에 말린 것을 감국(甘菊) 또는 고의(苦薺)라 하는데 단맛이 나는 감국만 주로 약용하고, 쓴 것은 부분적 증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감국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주로 풍으로 생긴 어지럼과 두통을 치료하고 눈의 정혈을 기르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며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하고 풍을 치료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노란 국화인데, 꽃의 색만 흰색인 흰색 감국은 약효가 가장 좋으나 구하기 힘들어 일반적으로 노란 감국이 약용으로 쓰인다. 풍으로 어지러운 데 효과가 있고, 머리가 희지 않게 하며 가슴속에 열이 있어 답답한 증상에도 좋다는 흰색 감국. 답답한 일상에 지친 이에게 노란 국화 사이에 핀 귀한 흰색 감국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기쁨이 될 것이다.

7~9월에 잎이 나오는 부분에 입술 모양의 작고 연한 보라색 꽃이 피는 익모초. 고려 때는 이두어로 목비아차(目非也次)라 했으며, 조선

시대에는 '암눈비앗'이라 불렸다. 최근에는 익모초로 통용되는데, 익모(益母)란 여성의 질환에 두루 유익하게 쓰이는 풀이라 하여 붙여졌다. 꽃이 필 때 밑동에서 잘라 햇볕에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산후의 지혈, 월경불순, 현기증, 복통 등의 부인병에 익모초를 하루에 5~10g을 달여 먹으면 좋다. 하복부가 팽만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전신에 힘이 없을 때 복용하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유도해 여성이 해산 후 복용하면 회복력이 빨라진다. 부종이 있으면서 소변을 볼 때 약간의 출혈이 있는 신장염에 사용하면 지혈 효과와 이뇨 작용으로 부종이 신속히 소멸되고 식욕이 증가하며 빈혈 환자는 복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민간에서는 여름철에 더위를 먹어서 식욕이 없고 때로 오한이 나면서 열이 있을 때 생즙을 짜서 먹는다.

새콩, 여우콩 등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며 소소한 재미를 주는 야생콩 꽃들. 그중 돌콩은 서울 시내 한복판의 가로수 아래서도 볼 수 있고, 다소 한적한 길가나 자투리 땅, 산기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콩이 오늘날 수많은 인류의 중요한 먹거리인 콩의 원종이고, 한반도가 원산지라는 설이 있다. 대체로 한 식물의 재배종과 야생종 그 중간 종이 가장 많은 곳이 그 식물의 원산지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 인류를 먹여 살리고 있는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과 그 콩의 기원이 작은 돌콩이라니 그것 참 기특하다. 돌콩은 가늘며 긴 줄기가 다른 물체를 감으며 자라며 연한 보라색 꽃이 핀다. 줄기와 잎은 위장의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근육의 타박상에 신선한 뿌리를 짓뎠어 술을 넣어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 작은 콩알과 비슷한 흑갈색의 종자는 서목태, 야대두라 하여 요통과 근골이 연약해지는 증상에도 효과를 얻는다. 최근에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S

에디터 문비승 사진 이종근 세밀화 그림 송훈 도움 주신 곳 아모레퍼사픽 미술관(031-283-0309)

참고 문헌 <약용식물대사전>(다나카 고우지, 동학사)



白甘菊

하얀 감국

흔하지 않은 하얀 감국은 귀한 약재로, 풍으로 어지러운 데 효과가 있으며 머리가 희지 않게 한다.

益母草

익모초

산후의 지혈, 월경불순, 현기증, 복통 등의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





野大豆

돌콩

작은 콩알과 비슷한 흑갈색의 종자는 서목태, 아대두라 하여 요통과 근골 연약 증상에도 효과적이다.



새로운 미의 기준을 세우다

단순히 잡티 없이 하얗고 깨끗한 얼굴을 피부 미인으로 친다면 이는 일차원적인 미감일 것이다.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은 나만의 얼굴빛을 찾고 그것을 장점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빛과 열을 동시에 차단하는 낮 동안의 케어 제품이 필수다.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진한 색조 메이크업과 두꺼운 화장이 유행하는가 하면, 잡티 없이 하얗고 메이크업을 한 듯 만 듯 한 스타일이 유행할 때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 얼굴의 장점을 찾아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이다.

그렇다면 내 얼굴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잡티가 없는 백색 피부보다는 내게 어울리는 얼굴빛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빛이 붉어지거나 칙칙한 기운을 개선하고 안정감 있는 피부 톤을 유지해주는 제품이 필요하다.

설화수 소선보(素扇保)크림은 피부를 보호하고 식혀주는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안티에이징 데이크림으로, 자외선은 물론 피부에 닿는 열을 차단해 열 노화를 사전에 예방해준다. 유해한 환경 속에서 맑고 고운 피부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케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자외선과 열을 동시에 차단해주는 소선보크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외부의 열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편백다당체, 내부의 열을 다스리는 오메, 피부의 칙칙한 기운을 개선해주는 백화사설초, 그리고 홍삼 사포닌 성분이 더해져 열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노화까지 케어해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부를 가꾸는 데 저녁 시간을 주로 할애하는 편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낮 시간에 발생하는 열 노화에는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외선, 공해,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열에 노출되는 한낮이야말로 섬세한 안티에이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이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열에 의한 노화에 대응함으로써 빈틈없는 안티에이징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열 노화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부에 지속적인 열이 가해지면 콜라겐의 양이 현격히 저하되면서 탄력섬유가 분해되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한 열로 인한 적외선과 자외선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주름의 깊이와 수가 심하게 늘어난다. 자외선을 모두 차단한다 해도 적외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주름 생성을 막을 수 없기에 소선보크림을 통한 낮 시간의 케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서양의 종이 가 단순한 보호막의 기능을 한다면, 우리의 한지는 빛과 열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을 알맞게 조절할 뿐만 아니라, 습기가 심할 때는 습기를 흡수했다가 공기가 건조해지면 습기를 내뿜어 신축하는 성질의 한지. 또한 채광이 잘되어 빛과 열을 다스리는 한지의 원리는 소선보크림과 매우 닮아 있다. 아름다움의 기준을 일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설화수의 시도는, 새로운 미감을 제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소선보크림은 한낮의 자외선과 열로 인한 피부 노화를 케어해주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이다.



제주의 마음을 담다

하늘이 선사한 천혜의 자연 제주도, 차 한 잔에 담긴 푸른 마음.

차는 두루 품격을 갖춘 아름다운 인간의 깊이깊은 영혼처럼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근간들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신령스러운 나무가 바로 차(茶)인 것이다. 차의 색, 향 그리고 신비한 기운과 맛을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 품질 좋은 차는 맑은 물의 고향이며, 구름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의 달빛처럼 이루어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다. 초의 스님은 그런 차를 두고 ‘옥골선풍(玉骨仙風)’이라 했으며, 중국의 유명한 다인 중 한 사람이었던 진미공은 차에 대해 “아름다운 그들은 덮개를 가렸고, 신령스러운 풀로 깃발을 시험했다. 대로 만든 화로에 그윽하게 끓이니, 소나무 불은 솜처럼 날린다. 물은 어우러져 담담해지고 차는 다투어 그득하게 우러나네. 푸른 향기가 길가에 가득하니, 영원히 돌아갈 줄 모르는구나”라며 절창을 읊었다. 한 잔의 차에는 하늘이 선물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제주는 화산 활동으로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화산회토가 오염 물질을 강하게 흡착하는 천연 필터 기능을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낸다. 세계 3대 녹차 재배지로 연평균 기온 섭씨 15도 이상, 연평균 강수량 1,800밀리미터 이상의 기후 조건 덕분에 다른 어느 곳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제주가 처음부터 명차의 재배지였던 것은 아니다. 차를 즐겨 마셨던 추사 김정희의 예술혼이 담겨 있는 제주였지만 어느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황폐해졌던 것. 천혜의 자연이 있다 한들 그 안의 가능성을 바로 보고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낙원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늘이 내린 자연을 오롯이 품은 제주의 가능성은 제주의 서광, 도순, 한남 등에 조성된 차 재배 단지를 통해 발현됐다. 오늘날 제주의 명성은 자연과 사람의 합작이라는 점에 더 의의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열정과 집념으로 태어난 오설록 세작과 오설록 삼다연 제주영굴.

오설록 세작은 곡우 즈음, 제주의 설록 직영 다원에서 자란 부드러운 어린 찻잎으로 만든 전통 작설차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설록 직영 다원에서 채엽한 세작은 증기로 찌고 덫은 ‘옥록차’와 ‘뫼음차’를 절묘하게 블렌딩하는 오설록 제다법으로 만들어, 감미로운 풍미와 청긋빛 수색 그리고 은은한 향이 있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오설록의 명차다.

제주 삼나무통에서 숙성한 후발효차에 제주영굴을 더한 색다른 차, 삼다연 제주영굴. 한국 전통장류에서 유래한 균주로 발효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자연의 삼나무통에서 숙성한 삼다연. 여기에 신선이 먹는 귀한 굴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제주 영굴의 맛과 향이 삼다연의 맛과 수색, 향을 훨씬 좋게 한다. 한 모금에는 울창한 삼나무 숲을, 또 한 모금에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굴의 향을 떠올리며 제주를 느낄 수 있다.

상큼한 영굴 에센스와 향긋한 과육이 스며든 오설록 삼다연 제주영굴로 나른한 봄날을 싱그러운 빛깔로 채워보자.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윤숙현 도움 주신 곳 규방도감(02-732-6609), 아원공방(02-735-3482) 참고 문헌 (같은 잎 다른 맛 중국차 이야기 | 김정연, 안그라픽스)



위 싱그러운 향의 오설록 삼다연 제주영굴. 수가 놓인 손수건과 옷칠된 바구니는 규방도감. 왼쪽 제주의 설록 직영 다원에서 자란 부드러운 어린 찻잎으로 만든 전통 작설차인 오설록 세작. 청화백자 다완 세트는 정길영 작품으로 아원공방.



귀한 피부를 위한 설화수의 과학적인 처방

우수한 품질의 한방 원료와 과학적인 포제법으로 가득한 것은 넘치지 않도록,
부족한 것은 채우도록 돕는 설화수를 통한 홀리스틱 뷰티.



어린 피부를 보하다, 설화수

우리 선조들이 사랑했던 눈부신 백색을 기조로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설화수 스파에서 박지영 씨를 만났다.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기운의 그녀.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 등을 꾸준히 애용한 그녀는 특히 스테디셀러인 윤조에센스에 애정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녀의 이러한 설화수 사랑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이라는 선물을 선사했다. 박지영 씨가 추천받은 프로그램은 고영양 트리트먼트.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봄의 번덕스런 날씨에 손상된 피부의 건조함을 집중 케어해줄 프로그램이다. 인삼뿌리부터 진생베리까지 인삼을 고스란히 담아낸 자음생크림을 주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집중 공급해 균형을 바로잡는 페이스 집중 트리트먼트.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안팎을 다스려 본연의 피부 탄력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입체화된 효능 성분의 자음생크림과 홍삼 마스크, 스페셜리스트의 섬세한 케어에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 같다는 그녀의 얼굴엔 싱그러운 미소가 찾아왔다.

깊이 있는 전통 한방의 지혜

조선 시대 왕실에서 행해졌던 향진포 마찰과 한방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오감을 깨우는 향, 전통적이며 과학적인 도구인 옥, 호박, 백자를 이용한 마사지 도구는 설화수의 제품과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손길을 더해 완성되는 설화수 스파만의 특징이다. 그 중 한방 성분을 기조로 하고 있는 설화수 제품과 한방 약재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설화수 제품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설화수 스파만의 과학적인 한방 처방에 대해 소개한다.

〈동의보감〉과 한방의 이론에 따르면 음과 양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이 대응하고 반복하며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 몸 속의 음과 양이 상생해 그 균형이 안정되면 피부는 안에서부터 밝게 빛나며, 치우침 없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 설화수는 이를 위해 전통 한방의 지혜를 적용해 다양한 효능 성분이 서로 보좌하고 응대하며 피부 상생을 구현하도록 하며, 설화수 스파는 이러한 설화수 제품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트리트먼트 효과를 극대화한다. 작약, 연자육, 옥죽, 백합, 지황의 다섯 가지 한방 성분이 들어간 자음단과 지골피, 감국, 사삼, 진피, 고본, 목단피, 의이인의 일곱 가지 한방 식물 성분의 자음보위단을 따뜻하게 찌낸 볼로 관리 후 고농축 인삼크림인 자음생크림으로 피부에 활력을 되찾아 주는 프로그램인 설화본생, 옥죽과 닥나무를 반죽한 미백경단으로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꿔주는 안색개선 트리트먼트 등 귀한 약재를 이용한 설화수 스파의 프로그램들. 무엇보다도 한방 성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설화수 제품의 효능을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기에, 설화수 스파에서의 시간은 피부뿐 아니라 몸 속 전체의 균형까지 조화롭게 다스려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실현한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4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02-411-0262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아침, 저녁으로 커진 일교차로 손상된 피부의 건조함을 다스려준 고영양 트리트먼트를 통해 촉촉하고 생기있는 얼굴을 되찾은 박지영 씨.





시대를 아우르는 러브 스토리, 뮤지컬 <닥터지바고>

극한의 전쟁 속에서도 아름답게 타오른 한 남자의 열정,
그리고 운명 같은 사랑.

일렁이는 봄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여유를 내기 힘들다면 크고 작은 문화 공연 소식을 전하는 5월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소극장의 미니 콘서트부터 화려한 대형 뮤지컬 공연에 이르기까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녹음이 완전하던 어느 날 고풍스러운 외관의 뮤지컬 전용극장, 샤롯데씨어터에서 엄윤주 씨를 만났다.

흰칠한 키에 도시적인 외모의 그녀는 어머니에게 추천받은 설화수 제품을 10년이 넘도록 쓰고 있다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하는 설화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깨끗하고 고운 피부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 그녀와 함께 볼 공연은 뮤지컬 <닥터지바고>.

뮤지컬 <닥터지바고>는 노벨문학상에 선정되었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자전적 장편소설이다. 러시아 10월혁명 전 부르주아들의 화려한 일상과 혁명 후의 암울한 시대, 역사 속 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 한 남자의 사랑과 열정을 담은 대서사극으로 1965년 데이비드 린에 의해 영화화되어 1966년 아카데미 5개 부문을 수상한 20세기를 대표하는 러브 스토리 중 하나다.

뮤지컬 <닥터지바고>는 방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원작 소설이 지닌 웅장하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 간의 얽혀 있는 사회적 구조를 드라마틱한 한 편의 뮤지컬로 구현했다.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팀과 각국의 프로듀서들은 다양한 시도를 거쳐, '제2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찬사와 함께 호주에서 뮤지컬 <닥터지바고>의 월드 프리미어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성공을 발판으로 높은 문화 의식을 가진 한국 관객을 위한 한국 초연 공연을 필두로, 전 세계 공연 시장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자신의 곁을 지키는 부인 토냐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픈 라라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지만 한편으로는 혼돈의 역사 속에서 용감하게 시대를 헤쳐나가는 유리 지바고.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맨오브라만차> <헤드윅>뿐만 아니라 영화 <말아톤> <타짜> 등을 통해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작품마다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으로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아온 조승우가 표현하는 유리 지바고는 뮤지컬 <닥터지바고>를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였다.

오래된 러시아 빌딩에서 착안한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진 4.4도로 경사진 무대는 인위적 원근법을 통해 전체 무대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고 깊어 보이게 했으며 러시아혁명의 시대상을 반영한 흑백 영상은 기존 대형 공연에서 보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잔인한 전시의 상황과는 대조적인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의 뮤지컬 넘버들은 보는 내내 가슴을 시리게 했다.

겨울을 진정 겨울답게 보낸 이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온통 감사의 이유이며 삶의 희망의 증거다. 뮤지컬 <닥터지바고>가 말하는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며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현대 역사는 사상과 이념의 논쟁이 한 민족의 운명은 물론이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담대한 가슴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를 선물했다. 뮤지컬 <닥터지바고>가 그랬다. 꽃잎처럼 흩날리던 눈송이의 마지막 장면이 더 아련하게 가슴을 울리던 이유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오디오뮤지컬(02-556-8556)



1 공연을 보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든 관객들. 2 러시아 무드로 꾸민 로비 앞 설치물. 3 시원한 외모의 엄윤주 씨. 4, 5 간결하지만 인상적인 무대 구성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조화를 이룬 뮤지컬 <닥터지바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연극 <친정엄마>

가릴 수 없는 태양 같이 늘 우리와 동행하며 인생 한 권에 자리잡은 '엄마'라는 이름의 향수. 연극 <친정엄마>는 부르기도 전에 먹먹해지는 그 이름에 담긴 송고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회환을 담아냈다. 에디터 문비송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를 막론하고 엄마를 소재로 한 이야기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며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랑 받고 있다. 연극 <친정엄마>는 세상 모든 모녀들을 대변하듯 장면 하나하나에 우리의 진심이 녹아 들어 있는 작품이다. 가장 가깝지만 애뜻한, 늘 가슴 한구석이 시린 존재, 한때는 딸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잊고 딸을 위해, 자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엄마. 이 시대 모녀들을 위한 이야기 연극 <친정엄마>는 방송작가 고혜정의 수필 <친정엄마>를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억지스러움 없이 우리 삶 그대로를 연극으로 펼쳐 보이며 나와 엄마의 이야기를 말한다. 약한 여자지만 자식들을 위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강인하게 그리고 희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의 많은 엄마를 위해 만들어진 공연. 조금 더 현실적인 '엄마와 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아닌 일상적인 다양한 갈등 요소를 넣어 현실성을 높이면서 관객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편한 작품으로 다가온 <친정엄마>.

지난 2007년 국민 엄마 고두심씨 출연한 <친정엄마>를 시작으로 정영숙, 연운경, 전원주 등 최고의 출연진과 함께 마음을 울리는 연기와 감동으로 많은 찬사를 받으며 화려한 막을 내렸다. 그 후로 1년, 더 탄탄해진 스토리와 가슴 뭉클한 배우들의 연기는 2012년의 관객을 맞이하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마음속에 감춰둔 '사랑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는 연극 <친정엄마>를 통해 진정한 모정을 느낄 수 있다.

일시 5월 5일~6월 3일 **장소**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문의** 1566-5490 **관람료** R석 5만 5,000원 / S석 4만 4,000원 / A석 3만 3,000원



뮤지컬 <위키드> 오리지널 팀 내한 공연



Photo of American Production by Joan Marcus

브로드웨이의 대형 뮤지컬 <위키드>가 개성 넘치는 오리지널팀과 함께 한국을 찾아온다.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판타지 문학의 대가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도로시가 오즈에 떨어지기 전 이미 그곳에서 만나 우정을 키웠던 두 마녀가 주인공으로 돌아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허영 덩어리 소녀가 되었는지를 매력적인 스토리로 풀어낸다. 특수 효과로 만들어낸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무대와 그래픽상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 수상에 빛나는 음악은 공연장에 발을 들여놓은 모든 관객을 <위키드>의 마법에 홀리게 만들 것이다.

일시 5월 31일~6월 30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1577-3363 **관람료** VIP석 16만원 / R석 13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핀 울 탄생 100주년 전시 <북유럽 가구 이야기>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거장 핀 울(Finn Juhl, 1912~1989)의 가구 디자인 전시가 열린다. 핀 울은 한스 베그너, 아르네 야콥센 등과 함께 덴마크를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이며, 스칸디나비아 가구 스타일을 창조한 주인공이다. 그가 디자인한 '치프테인' 의자나 'No. 45' 의자는 현대 의자 디자인 역사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가구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수의 의자뿐 아니라 책상, 캐비닛을 비롯한 가구와 그릇, 조명 등의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핀 울의 자택을 볼 수 있는 동영상과 설계 도면, 작업실 등 그의 미학을 구현한 다양한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핀 울과 동시대에 활약한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제품을 함께 전시하며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정수를 폭넓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4월 26일~9월 23일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관람료** 무료



제이슨 므라즈 내한 공연



서정을 노래하는 보헤미안 제이슨 므라즈가 부산에 온다. 2002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로, 팝과 록, 재즈와 컨트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성은 물론, 대중의 마음을 흔드는 선율과 보이스로 전 세계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슨 므라즈, 특히 국내에서는 2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기록하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해외 뮤지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 첫 정규 앨범인 <Waiting For My Rocket To

Come)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제이슨 므라즈는 대표곡 'I'm Yours'로 '빌보드 HOT 100'에 7주 동안 머물며 빌보드 싱글 차트 최장기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첫 내한 공연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제이슨 므라즈의 대표곡과 신곡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기대할 만하다.

일시 6월 8일 오후 8시 **장소** 부산 벡스코(BEXCO) **문의** 02-3141-3488 **관람료** 스탠딩 R석 12만 6,000원/지정석 S석 11만원

정경화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회

"제가 연주할 바흐는 저의 내밀한 고백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 정경화의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회가 열린다. 정경화가 평생의 프로젝트로 꼽는 것이 바로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녹음, 그리고 모차르트와 베토벤 소나타 녹음이다. 30년의 레코딩 커리어를 통해 비발디에서 프로코피에프에 이르는 거의 모든 바이올린 협주곡과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했음에도 유독 위의 셋만은 피해왔다. 아마 이 작품들의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정경화는 이제 바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레코딩에 도전한다. 이번 공연은 레코딩을 통해 들게 될 정경화의 바흐를 성당 특유의 공간에 의한 공명과 부드러운 음색의 발현, 풍부한 진함을 가능케 하는 명동성당에서 만나게 된다.



일시 5월 15일~6월 4일 **장소** 명동성당 대성전 **문의** 02-518-7343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7만원

플라멩코 댄스뮤지컬 <카르멘 모타의 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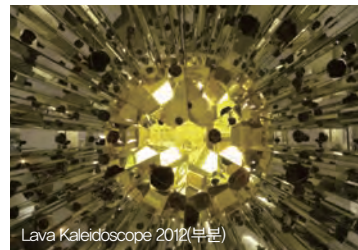
스페인 플라멩코의 살아 있는 전설적 무용수 카르멘 모타가 <알마>로 한국을 찾는다. 불꽃같이 타오르는 영혼이라는 뜻의 작품명처럼 이번 공연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

오르는 플라멩코의 뜨거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무대가 될 것이다. 단순히 플라멩코만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춤을 결합시켜 혁신적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음악과 소리 대신 음의 진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가장 화려한 플라멩코를 만들어내는 그의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기에 더욱 특별하다.

일시 5월 23~26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517-0394 **관람료** VIP 15만원/R석 12만원/S석 7만 7,000원/A석 5만 5,000원

<올라퍼 엘리아스>전

조명·유리·거울 등 인공적인 재료와 물·안개·이끼 등 자연 요소를 도구로 삼아 지난 20여 년간 과학과 접목시킨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 올라퍼 엘리아스. 덴마크 코



펜한겐에서 태어나 아이슬란드에서 성장한 작가는 북유럽의 신비로운 자연 풍광을 작업의 영감으로 삼아왔다. "자연이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경험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재"라고 밝히는 엘리아스는 거대한 자연현상을 전시장 내부로 끌어오으로써 예술과 일상 그리고 관객 간의 물리적·감각적 소통을 유도한다. '움직임, 환경과의 교감, 공간에의 이해, 시간성'이라는 오랜 관심사를 예술의 언어로 펼쳐낸 작가의 이번 전시는 최신 설치 작품과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4월 19일~5월 31일 **장소** PKM 트리니티 갤러리 **문의** 02-734-9467 **관람료** 무료

<자연을 탐(探)하다: 이재효> 전

성곡미술관이 2010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중견·중진작가 집중 조명 시리즈 열 번째로, 중견 조각가 이재효의 지난 20여 년을 돌아보는 중간 회고전을 개최한다. 도처의 생활 문화 공간에서 접하는, 그래서 더욱 익숙해진 이재효의 나무, 못 작업뿐 아니라 초대형 규모의 설치 작업에서부터 공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크기와 다양한 재료의 설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재효의 특징이자 미덕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과 인공이 그러하고 작품과 설치되는 공간, 작가와 재료가 그러하다. 보잘것없는 자연의 티끌, 터럭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작가의 애정을 만날 수 있다. 끊임없이 반복, 순환하는 자연의 다양한 형식과 꾸준한 성실함으로 이어온 작가의 지난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시 5월 27일까지 **장소** 성곡미술관 **문의** 02-737-7650 **관람료** 어른·대학생 5,000원/학생 4,000원



0121-1110-112032 Wood(larch & camellia) 38x38x299cm & 100x74x62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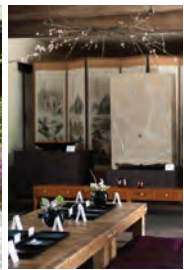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이 담긴 동백윤모오일 재탄생

설화수 동백윤모오일은 설화수 브랜드의 역사이자 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백기름에서 시작된 동백윤모오일의 발자취는 이후 현대적인 여성의 모발 케어를 위한 제품으로 꾸준히 진보되어 왔다. 2012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동백윤모오일은 도예가 이영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전통적인 유병(油瓶)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용기가 돋보인다. 옛 여인들이 사용하던 유병의 형태에 동백꽃의 붉은 기운을 담은 갈색 동백 씨앗을 형상화한 용기는 설화수의 역사와 철학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동백윤모오일의 달라진 모습은 외형만이 아니다. 동백꽃을 연상케하는 플로럴 계열의 향에 오일 특유의 끈적임을 최소화하여 사용감이 산뜻해진 것이 특징이다. 천연 유래 동백 오일 성분이 모발의 유분 및 수분의 균형을 유지해주며, 각종 유해한 환경이나 자극으로부터 머릿결을 보호해준다.



2012년 설화문화클래스, 그 첫 번째 이야기

설화문화클래스는 전통 문화와 대중과의 소통을 돕고, 장인들을 통해 우리 문화 속에 담긴 근본의 지혜와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설화수의 새로운 문화 행사다. 2012 올 한 해 동안 '정준모 명사와 함께 장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총 3회 진행되며, 직접 전통공예를 배워보는 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을 역임한 정준모 명사는 탁월한 심미안과 깊이 있는 평론으로 유명하다. 정준모 명사가 만난 첫 번째 장인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옷칠 장인 손대현 옷칠장.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신비로운 빛깔의 옷칠공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온 손대현 옷칠장과 정준모 명사의 대담은 마음 맞는 벗처럼 서로의 고견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설화문화클래스가 펼쳐진 곳은 조선 26대 임금인 고종의 잠저(潛邸)이며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집이었던 운현궁의 별당인 이로당. 설화수 VIP 고객들이 참여한 이번 클래스에서는 전통 옷칠



에 대한 제작 과정을 배우고 컵에 직접 옷칠 문양과 99%의 순금을 장식하는 등 옷칠공예를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갖는다. 그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한 번의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전통 문화를 통해 진정한 나의 뿌리를 알고 동시에 세월을 관통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 다가올 설화문화클래스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다.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담다, 한지그림공예

아련한 빛으로 곱게 물든 한지, 어느새 꽃이 되고 나비가 된다.



〈Sulwhasoo〉 독자 참여 코너 ‘전통공예 배우기’

매호마다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는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서 다양한 공예 기법으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배우기’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독자엽서를 통해서 응모 가능합니다.

서구화된 의식주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여유와 해학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던 선조들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복잡한 서울 한가운데, 마치 조선 시대에 멈춘 듯한 정취를 풍기는 북촌문화센터. 칠보공예, 매듭공예, 서각공예 등 다양한 전통공예를 배울 수 있는 북촌문화센터는 누구든지 열린 문으로 들어와 한옥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시원하게 탁 트인 마루에 앉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싱그러운 봄날, 북촌문화센터에서 조선희 씨를 만났다.

북촌문화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다는 그녀는 이웃집에 놀러 온 듯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그녀와 배워볼 공예는 한지그림공예. ‘문방사우(文房四友)’라 불릴 만큼 우리 민족과 가깝게 지내온 귀한 존재로서 우리 민족 생활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지는 1,300년에 걸친 제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류 사회에 있어 문화의 발달은 종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우리의 한지는 중국의 걸러 뜨는 방식과 달리 ‘외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뜨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친 수출을 통해 명실상부한 한지 제작의 종주국임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 한지의 소박함과 부드러움은 많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밑그림 위에 천연 염색을 한 한지를 손으로 자연스럽게 찢어내 전통 풀로 붙여내는 방식의 한지그림공예, 고운 빛깔 함에

서부터 양증맞은 머리핀에 이르기까지 한지그림공예는 단순히 종이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빛나는 생활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사에게서 한지의 독보적인 위치와 역사를 경청하던 조선희 씨, 손끝에 마음을 담아 세심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찢어낸 한지가 한 송이의 꽃이 되는 것을 체험한 그녀의 마음에 핀 감동의 꽃 또한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만 같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서울시 북촌문화센터(02-3707-8388, <http://bukchon.seoul.go.kr>)





page 26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For Korean ancestors who valued politeness, courtesy implied the formality of passage of rites and rituals, and the fundamentals of social norm. In this issue, we discuss the courtesy of Korean ancestors who believed that national and societal development depends on the happiness of family that brings peace of mind.



page 40 | **The World's Design Hotel**

<The World's Design Hotel> introduces the world's design hotels that are glowing with unique personalities, from the hotels built by renowned designers to the design hotels of fashion brands. Hotels are no longer just for travelers' lodging : they now offer rest beyond visual pleasure. This issue introduces DAR HI, the colorful hotel designed by Matali Crasset, a French designer. It will present the new concept of eco for those who prefer graphic and minimal styles.



page 46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introduces <HOME WITHIN HOME>, the large-scale solo show of Doho Seo, a global artists. Doho Seo's major artwork titled 'Home' extends beyond the meaning of space for an individual in his nomadic lifestyle in Seoul, New York, and London, and shows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existences, such as oneself and others, and different cultures.



page 52 |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is a column that explores the wardrobes, food, and home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ntroduces artworks that beautifully harmonize tradition and modernity. This issue presents a collection of illustrations for 'Sulwhasoo with Hand-drawn Images' to bring changes to Sulwhasoo. Various genres of drawings will redefine Sulwhasoo's philosophy and spirit.

page 60 |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is where you can meet the skills of the masters preserving and developing Korean tradition to realize the beauty and superiority of Korean traditional craft. This issue introduces Korean Paper Master Yong Hoon Jang, registered as Important Intangible Asset No. 117. He has participated in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is Sulwhasoo's beautiful step to preserve the Korean heritage. He talks about his life and how he is introducing the superiority of Korean paper to the world.



page 68 |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troduces tourist attractions that offer comfort and healing to modern people for peaceful mind. The trip in search of a rest in Korean traditional spaces that give consolation and remedy to the modern people : this issue visits Seowon, where Korean ancestors acquired knowledge and meditated their mentality amongst nature, to rediscover the meaning of a rest.



page 74 | **Trip of Korean Music**

<The Journey of Korean Music> is a column in search of the origin of Korean music. The story of Korean music written amongst the landscapes of Korea in different seasons. Western music is known as the music of the heart, whereas Korean traditional music is known as the music of the lung. In this issue, we met Pansori Singer Il Dong Bae and talked about his life as a Korean traditional musician.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introduces o'sulloc Sejak, the traditional tea of young tea leaves from Sulloc Tea Garden in Jeju, and o'sulloc Samdayeong Jeju Citrus sudachi with tangy Citrus sudachi essence and fruit. It is an invitation to a tea party where you can feel the freshness of Jeju in May.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 여러분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독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욱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설화수 제품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2년 6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외
- 당첨자 발표** 2012년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윤조에센스 10명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촉촉함을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살펴주는 한방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바르면 메마르기 쉬운 피부에 윤기를 주어 다음 단계의 흡수 및 효능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의 제품입니다. 문의 080-023-5454



오설록 우전(雨前) 5명

오설록 우전은 제주의 설록 직영 다원에서 이른 봄 정성껏 딴 첫물차를 전통 방식으로 덥혀 만들어, 구수한 맛과 향을 간직한 고급 우전차입니다. 최고의 잎만 따서 세심한 공정을 거쳐 만든 우전의 깊고 풍부한 맛은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여유를 선사합니다. 문의 080-023-5454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10명)

- 강경화 서울 노원구 하계동
- 강규옥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
- 김미나 경기 과천시 별양동
- 김영자 전남 장흥군 장흥읍
- 김은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 서순례 경북 구미시 형곡2동
- 엄윤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윤영록 전남 여수시 둔덕동
- 정향숙 충남 예산군 예산읍
- 최복득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오설록 우전(5명)

- 송경화 대구 달서구 대천동
- 유영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 정순옥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 진정숙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 황지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